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 석사 학위논문

청년 레즈비언의 '부치' 경험과 해석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여성학

송우인

청년 레즈비언의 '부치' 경험과 해석

지도교수 김 수 아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여성학 전공
송 우 인

송우인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2월

위 원 장 조 선 정

부위원장 배 은 경

위 원 김 수 아

국문초록

2015년도 이후 일명 ‘페미니즘 리부트’의 시기를 거치면서 페미니즘은 청년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의미화하는 가치로써 널리 퍼지게 되었다. 그러나 페미니즘에 대한 절대적인 관심이 증가한 효과와는 별개로 이는 오래된 논쟁들을 재소환하는 효과를 낳기도 하였다. 청년 여성들이 성차별을 분석하는 이론적 토대로 급진주의 페미니즘을 소환하면서 ‘본질적 여성’이라는 주제가 다시 등장한 것이다. 이로 인해 TERF(Trans-Exclusionary Radical Feminist, 트랜스 배제적 래디컬 페미니즘)가 페미니즘 담론에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레즈비언 하위문화의 오래된 논쟁인 ‘부치-팸’ 관계에 관한 논쟁도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레즈비언 하위문화에 관한 국내 연구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던 것이 그 실정이다. 이에 다시 소환된 ‘부치-팸’ 관계가 반페미니즘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본 연구는 의문을 제기하고 부치에 관한 오래된 오해를 파헤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재하는 부치들의 경험을 살펴보고, 현재 청년 부치들의 실천을 들여다보며 이를 해석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청년 레즈비언들이 경험하는 부치와 이들의 실천에 대해 해석해보고자 하였다.

우선 부치와 팸을 둘러싼 하위문화가 생겨난 역사를 살펴보았다. ‘부치’라는 용어가 미국의 레즈비언 하위문화에서 발생한 양상을 살펴보고, 이것이 어떻게 한국에서 쓰이게 되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여성의 남성성에 관한 이론을 검토하여 ‘남자 없는 남성성’을 상상하게 하는 부치의 의의를 발견하였다.

한국 레즈비언 문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본 결과 한국에는 ‘부치’라는 용어가 자리 잡기 이전에도 ‘바지씨’라는 레즈비언의 남성성을 드러내는 정체성이 존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레즈비언 공동체는 서구의 ‘부치-팸’ 관계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바지씨-치마씨’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이것이 PC통신과 온라인 모임의 발달을 통해 퍼져나갔다. 그러나 현재는 SNS가 레즈비

인 공동체 형성의 중심이며, 다양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공간이었다. 이러한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2015년도 이후 ‘탈코르셋 운동’에서 파생된 다양한 행동강령들을 통해 레즈비언 공동체에는 ‘레즈비언이 되기를 선언하는 청년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은 좁은 의미의 여성, 그리고 좁은 의미의 레즈비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 순수성을 보존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며 그들은 레즈비언을 제외한 퀴어 존재를 배척하였는데, 이를 통한 혐오의 정동 속에서 긴장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이러한 긴장 관계를 들여다보고 배척의 대상이 된 부치를 재조명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현상 속에서 부치들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부치니스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해석한 결과, 부치의 재현은 전통적인 이미지와는 확연히 달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통적인 스테레오 타입의 부치와 오늘날 부치의 연결고리는 약했으며, 새로운 부치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남성성을 재현하고 있었고, 거꾸로 이를 통해 ‘부치’로 인식되고 있었다. 또한 부치의 특징 중 가장 핵심이 되는 특징은 바로 ‘주는’ 특징이었다. 이들은 상대 여성을 대하는 태도로 자신의 부치니스를 실천하고 있었다.

한편 페미니즘 리부트는 부치의 용어의 세분화와 변화에도 기여하였다. 기존의 ‘왕부치’가 ‘한남부치’라는 돌출된 존재로 변한 데에는 페미니즘 리부트를 통해 등장한 ‘미러링’이 주요 원인이었다. 페미니즘 리부트는 부치 범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이는 오히려 페미니즘적인 정화작용을 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부치는 레즈비언 하위문화 안에서 여러 기능을 하고 있었다. 부치는 삶의 양식과 인식틀을 제공하여 변주되는 존재들이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는 크게 명명, 호명, 반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부치는 이미 생물학적 경계를 넘나드는 범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탈

코르셋을 한 레즈비언’, 이른바 ‘탈코비언’과 부치는 결코 동일한 범주가 될 수 없었다.

이렇듯 부치를 둘러싼 담론은 규범의 위반을 통해서 확장되고 있었는데, 현재 부치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남성성과 부치의 이미지에 균열을 내고 있었다. 그들은 반드시 썸을 욕망하지는 않으면서 부치-썸 관계의 도식을 위반한다. 또한 남자를 패러디하기 보다는 오히려 헤게모니 남성성을 비틀며 레즈비언 하위문화에 탄력성을 제공하는 유머로 기능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부치는 ‘생물학적 여성’을 넘어 그 경계에서 있는 존재를 포괄하는 범주로 기능하고 있었다. 부치라는 범주가 필요한 이들은 여전히 분명 존재하며, 이는 스테레오 타입과는 다르게 끊임없이 변주되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치는 여전히 한국 레즈비언 하위문화에서 여전히 유의미한 범주이다.

주요어 : 부치, 레즈비언, 레즈비언 하위문화, 래디컬 페미니즘, 탈코르셋, 청년 레즈비언
학 번 : 2020-24911

목 차

<국문초록>	i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문제제기	1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와 이론적 논의	5
1. 부치-웹 관계의 역사와 하위문화	5
2. 여성의 남성성	6
3. 한국 레즈비언 문화에 대한 선행연구	7
제 3 절 연구목적 및 방법	10
1. 연구문제	10
2. 연구방법	10
제 4 절 논문의 구성	13
제 2 장 한국 레즈비언 공동체 형성의 역사	15
제 1 절 한국 레즈비언 문화 역사 연구	15
1. ‘바지씨’의 출현과 레즈비언 공동체의 형성	15
2. 온라인 공동체 형성	19
3. SNS 중심의 레즈비언 커뮤니티 형성	20
제 2 절 정치적 레즈비언의 등장과 긴장	23
1. 레즈비언임을 ‘선언’하는 청년들	23
2. 레즈비언 문화 지형 변화와 긴장	28

제 3 장 부치 경험과 해석	31
제 1 절 부치 스타일	31
1. 여성성 표현을 둘러싼 긴장	35
2. ‘일스’와 이분법적 성정체성으로 패싱되기	35
3. 부치의 남성성 재현 양식	39
제 2 절 부치 수행	43
1. 부치들의 ‘애티튜드’	43
2. ‘주는 존재’인 부치	47
3. ‘왕부치’에서 ‘한남부치’로	50
제 4 장 부치 담론의 확장	
제 1 절 부치의 기능	55
1. 인식틀과 삶의 양식을 제공하는 부치	55
2. 부치 실천의 분류	60
제 2 절 수행적 젠더로서의 부치	67
1. 생물학적 경계 넘기의 부치	67
2. 탈코비언과 부치 담론	70
제 3 절 부치 규범의 위반	80
1. 부치 규범의 균열	80
2. 뽀뽀를 욕망하지 않을 수 있는 부치	82
3. 패러디가 아닌 부치	83
4. 유머로 소비되는 부치	85
제 5 장 결론	88
참고문헌	91

표 목 차

[표 1] 인터뷰 참여자 일반 특성	12
---------------------------	----

그 립 목 차

[그림 1] 한국 레즈비언 선언문	25
--------------------------	----

보존용 학위논문 정오표

페이지	정정 전	정정 후
p. 92		<p>김엘리. 2014. "불확실한 삶에서 움트는 신군사주의". 『창작과비평』통권 제165호. 38-54.</p> <p>김엘리. 2020. "20~30대 남성들의 하이브리드 남성성". 『한국여성학』제36권 1호. 139-1</p>

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제기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한국 여성들은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성차별 ‘피해’의 문제에 대해 각성하게 되었고, 피해를 중심으로 하는 페미니스트로의 주체화를 경험하였다(이호민, 2019). 페미니스트 주체로서 자신의 일상을 페미니즘적으로 의미화하는 정서는 2017년 ‘페미니즘 출판사’ 봄알람에서 출간한 ‘참고문헌 없음’의 출간 과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해당 책은 #문단_내_성폭력에 대해 성폭력 피해 문인의 경험담과 이를 고발하는 운동에 대한 여성 문인들의 생각을 담은 책이다. 이 책의 제목은 참고문헌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들의 공통된 피해 경험을 말하는 것이며, 그 자체가 페미니즘적이라는 인식을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정서는 당시 여성들의 큰 공감을 샀고, 해당 책은 출간을 위한 프로젝트에 필요한 후원금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후원금을 모금하게 되어 성공적으로 출간되었다(고한솔, 2017.2.21.).

그러나 참고문헌 없이 여성의 피해경험을 말한다는 것이 곧 페미니즘의 이론적 토대가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닐 것이다. 이 시기에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어려운 서구이론이 아닌 한국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페미니즘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독학자 페미니즘(김주희, 2017)과 같은 지식 구성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르상티망(ressentiment)의 정서를 중심으로 한 ‘여성 우선 페미니즘’이 페미니즘 담론장의 흐름으로 자리하게 되는 데 기여한 측면도 있다(정희진, 2018). 그리하여 트위터와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른바 ‘생물학적 여성’을 우선하고 트랜스젠더를 배격하는 페미니스트인 TERF(Trans-Exclusionary Radical

Feminist)의 주장이 우세하게 되었다. 이 논쟁은 페미니즘의 오랜 주제인 ‘여성’의 범주를 둘러싼 논쟁인데, 한국에서는 혐오표현 논의를 중심으로 설명되는 한계도 있었다.

또한 페미니즘 대중화 물결 이후 디지털 공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페미니즘의 논의는 2015-2016년 이후 1020세대가 페미니즘 의제화에 참여하면서 운동의 방식과 그 의제가 변화하기 시작했다(김애라, 2019). 1020세대를 중심으로 ‘사회가 여성에게 억압적으로 부여하는 관념 및 상징들을 벗어던지자’는 이른바 ‘탈코르셋(탈脫 코르셋corset)’ 운동이 전개되면서 1970년대에 미국에서 부흥하였던 급진-문화 페미니즘이 다시 소환되었으며 이것이 곧 이러한 페미니즘 흐름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이를 통해 “역사나 진보가 그저 시간의 순차적 흐름과 누적의 결과물이 아닌 사건과 충돌의 실천의 흔적들과 그것에 대한 서사적 재현인 것처럼, 페미니즘의 역사와 미래 또한 직선적 시간성의 흐름을 교란하고 넘어서는 다원적 경로들과 그 경로들 간의 겹침과 충돌을 포함하여 또한 그러한 궤적과 흔적들을 포착하고 서술하는 재현적 노력을 요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J. Scott, 2011; 김보명 2020, 87 재인용). 특히 정치적 레즈비어니즘과 레즈비언 분리주의의 주장, 즉 여성과 동일시 하는 여성(Woman-Identified-Woman)으로 표현되는 여성들 간의 동질적 이해관계와 정치학(Radicalesbians, 1970)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주장은 곧 온라인을 통해 규범적인 주장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김지혜(2021)는 한국에서 등장한 이와 같은 흐름을 “공격적 ‘여성’ 중심주의”라고 명명하고, ‘랜팸’(래디컬 페미니스트의 준말) 정치학은 젠더/페미니즘 담론의 획일화를 촉진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설명한다. 또한 소위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지금까지 가려져 온 ‘여성’ 인권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남성으로서의 특권과 성소수자 특권을 모두 지닌’ 게이나 MTF(Male To Femal) 트랜스젠더를 페미니즘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고수했다. 이들은 미러링 전략을 그대로 고수했기에 이러한 입장은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 장애, 인종 등과 연관된 다양한 비하 표현으로 연결되었고 이는 점차 다른 입장의 페미니스트들이나 성소

수자들에게 대한 논쟁과 공격으로도 이어졌다.”(나영, 2017, 111).

이 연장선에서 또한 레즈비언 커뮤니티의 오랜 논쟁이었던 부치-펌(Butch-Femme) 관계에 대한 논쟁 또한 다시 소환되었는데, 부치-펌 관계를 이성애적 모델의 모방으로 간주하면서 동시에 이를 배격하는 흐름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었다. 옥스포드 영어사전은 ‘부치’(Butch)를 ‘남성적인 외양이나 행동양식을 가진 레즈비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¹⁾ 따라서 ‘부치’여성은 ‘남성을 따라하는 역할놀이를 하는 자’로 해석되기도 하고 이성애의 이분법을 그대로 재현하는 존재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강제적 이성애에 반기를 들기로 선언한 레즈비언들에게 부치라는 존재는 ‘반페미니즘적’이며 자유로운 여성을 좁은 역할에 가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물론 부치-펌의 이분법에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흐름은 과거에도 존재하였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 이러한 관계 자체를 배격하며 이를 사라져야 할 일종의 ‘악습’으로 간주하는 주장이 트위터와 같은 공개적 SNS를 통해 주류의 견해처럼 보이게 된 것이다.

한편 이러한 디지털 페미니스트 주체들은 여성들이 본질적인 정체성을 공유할 것을 강조하고 이렇게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게 된 여성들의 연대를 위시하면서 젠더 개념과 젠더 표현 자체를 문제 삼게 되었다. 동시에 사회가 여성에게 강요하는 억압들을 모두 거부할 것을 주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주류 사회에서 ‘여성성’으로 읽혀지는 모든 젠더 표현을 그것이 표현되는 몸이나 위치의 특수성, 맥락, 의도, 효과와 무관하게 ‘코르셋’이라고 규정하였는데, 그 결과로 ‘생물학적 여성’의 몸으로 ‘남성적’인 젠더 표현을 실천해야만 ‘진짜 여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전혜은, 2021).

그러나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남성복을 입고,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의 ‘탈코르셋 한 레즈비언’들의 모습은 역설적이게도 ‘여성적’인 몸으로 ‘남

1) 인터넷에서 검색 가능한 옥스포드 영어 사전은 부치를 ‘a lesbian of masculine appearance or behavior’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Oxford English Dictionary, “butch”,
(<https://www.oed.com/view/Entry/25321?rskey=W7zROW&result=1&isAdvanced=false#eid>)

성적'인 젠더 표현을 재현하고 있었으며, 이는 부치의 외양을 닮아있었다. 겉모습만을 통해서는 '코르셋을 벗어던진 자유로운 여성'과 '남자를 패러디하는' 부치의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부치라는 범주는 어떻게 해석되고 있으며 부치와 탈코르셋 한 레즈비언(탈코비언)의 차이점을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여성의 몸으로 남성성을 입은 탈코비언만이 '진정한 여성'이자 레즈비언이라면 탈코르셋 운동 이전에도 젠더 규범을 위반하며 존재해 온 남성적인 레즈비언의 정체성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까? 더불어 부치는 과연 '남성을 따라하는' 존재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해 이 연구는 '여성의 몸으로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이라는 좁은 의미의 레즈비언에 대한 정의와 '남자 같은 레즈비언'이라는 좁은 의미의 부치의 정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나아가 그 의문을 넘어 역사 속에서 면면이 존재해왔던 한국의 남성적인 레즈비언의 존재를 확인하고, 청년 레즈비언들 사이에서 실제로 부치는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정치적 레즈비어니즘을 통해 새로이 기존의 레즈비언 문화에 편입된 탈코비언들이 부치라는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레즈비언 공동체가 형성된 배경을 살펴보면서 부치라는 용어가 한국에서 통용되기 전에 자생적으로 존재했던 젠더 규범을 위반하는 존재 '바지씨'를 살펴보고 남성적인 레즈비언에 대한 역사를 발굴하였다. 그리고 현재 한국 청년 레즈비언 사이에서 부치가 재현되는 양상을 살펴보고, 부치라는 정체성이 어떻게 구성되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해석하였다. 본 연구는 부치라는 범주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하고 다양한 계층의 부치를 아우르기보다는, 현재 청년들 사이에서 부치가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에 집중하였다. 이를 통해 레즈비언 하위문화에서 부치가 어떻게 실천되고 있으며,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해석하였다. 더 나아가 끊임없는 위반과 균열로 인해 부치 범주가 확장되는 양상을 포착하려고 노력하였다.

제 2 절 선행연구의 검토와 이론적 논의

1. 부치-웜 관계의 역사와 레즈비언 하위문화

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부치’라는 단어는 ‘터프한 아이’ 혹은 남성의 머리모양을 가리키는 말이었다(Them, 2018.8.21.). 이러한 부치라는 단어가 레즈비언의 어휘가 되기 이 전에도 ‘불 대거(bull dagger)’ 그리고 ‘불 다이크(bull dyke)’ 라는 남성적인 성소수자 여성을 가리키는 용어는 존재해 왔으며, 이는 할렘의 흑인 레즈비언 하위문화에서 파생되었다. 한편 1940년대 세계 제2차 대전을 기점으로 여성들이 공장에서 노동을 하게 되면서, 남성 노동자들과 평등하면서도 실용적인 바지를 입게 되었고, 이는 독특한 퀴어 스타일로 변용되었다. 그리고 대도시로의 이주와 노동자 계급 여성들을 위한 술집이 번창하였는데, 이 시기에 부치라는 용어가 노동자 계급 여성들이 자신의 공동체에서 남성성을 묘사하는 일종의 은어로 쓰이게 되었다(Faderman, 1991). 이러한 어원을 가진 부치가 어떻게 한국에서 쓰이게 되었는지는 추후 한국의 레즈비언 공동체 형성에 대해 다루면서 서술하였다.

반면 부치의 대척점에 있다고 여겨지는 웜, 그리고 부치-웜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1950년대 바(bar) 문화에서 특히 유용하게 사용되며 발전되었다. 특히 1940년대와 60년대 초반까지 부치-웜 관계는 레즈비언 하위문화의 기본틀이 되었다(Cartier, 2005). 그러나 Faderman은 이러한 바 문화, 그리고 부치-웜 관계가 당시 레즈비언 하위문화의 전부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계급, 인종, 나이라는 범주들이 교차되며 나타나는 하위문화의 양상이 모두 달랐기 때문이다. 레즈비언 역사학자 Joan Nestle(1987)은 노동자 계급의 남성스러운 레즈비언이었던 부치의 당시 생활상에 대해 구술하며 부치의 스타일은 남자를 따라한 것이 아니라 본능적 끌림에 따른 재현이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Faderman은 부치가

전통적인 남성상을 재현해야만 여성 파트너와 함께 지역 사회에 편입될 수 있었다는 점을 서술한다. 또한 당시 바를 중심으로 한 비밀스러운 레즈비언 문화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부치 혹은 펌이라는 증명을 해야 하기도 했기에 부치-펌 관계는 어느 정도 강압적인 측면이 존재했다. 그러나 1970년대 등장한 래디컬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들과 유니섹스 스타일의 유행으로 인해 전통적인 부치-펌 관계는 점점 그 견고함을 상실하였고, 추후 Faderman(1992)은 보다 다양하게 변주된 부치-펌 관계를 ‘새로운 부치-펌(Neo Butch-Femme)’이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2. 여성의 남성성

모든 사회에는 젠더에 관한 문화적 설명이 존재한다. 그러나 모든 사회에 ‘남성성’ 개념이 명확하게 존재하지는 않는다. 또한 남성성은 태생적으로 관계적 개념이기도 하다. ‘남성성’은 ‘여성성’과 견주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18세기 이전의 유럽 문화를 역사적으로 살펴보아도 분명 여자들은 남자들과 다르다고 간주했지만, 그 차이는 동일한 특성이 불완전하거나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했다(Connell, 2013).

이에 헬버스탐(Halberstam)은 남자 없는 남성성, 여성의 남성성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헬버스탐은 ‘남성적인 여성’이 남자의 모방이라는 말에 반박하며, 여성의 남성성은 남성이라는 사실의 모방이 아니라 오히려 남성의 남성성이 진짜로 보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남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남자와 여자의 두 육체를 가로질러 만들어진 산물이기에 여성의 남성성 없이는 남성의 남성성이 진짜로 보이지 않는다(Halberstam 2015, 25). 헬버스탐은 남성성이 남자의 육체와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신화화되어 왔으며, 따라서 여성이 가진 남성성이 지속적으로 무시되어 왔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무관심은 남성성을 권력과 지배에 결합시키려는 사회 구조를 지탱해왔다는 것이다. (Halberstam 2015, 26). 그러나 이런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남성성을 지닌 여자는 면면이 존재하였으며 여성의 남성성 또한 근대적 남성성을 형성하는데 공헌

하였다(80). 헬버스탐은 부치, FTM트랜스젠더, 드래킹 등 대중문화와 문학 텍스트 속에서 나타난 남성성을 표현하는 여성들과 여성-남성 경계에 있는 자들을 분석하며, 여성의 남성성이 다양한 남성성의 증식이라고 한다.

한편 게일 러빈(Gayle Rubin)은 부치의 남성성에 대해 사유할 때, 부치를 여성적인 것보다는 남성적 젠더 약호, 스타일, 정체성에 더 편안한 여성들을 위한 레즈비언 어휘라고 정의한다(Rubin 2015, 469). 또한 러빈은 부치가 젠더 위화감을 느끼는 여성들을 위한 생득적인 레즈비언 범주이기도 하다는 점을 포착한다. 나아가 레즈비언 공동체도 단일한 집단으로 상정할 수 없고, 레즈비언 집단에도 수많은 젠더 위화감이 존재한다고 이야기 한다(Rubin 2015, 470). 그러나 정치적 미덕이라는 기준 아래 ‘여성으로 동일시 하는 여성’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 이러한 위화감이 제거됨은 물론이거니와, 여성들의 성애와 섹슈얼리티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여성들 간의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게 된다(Smith, 1989).

레즈비언 문화 내에서 부치는 폭넓은 젠더변주를 아우르며 매우 다양한 방식의 남성성을 재현한다. 러빈은 단일한 여성 범주, 단일한 레즈비언 범주를 설정했을 때 경계에 서 있는 존재 혹은 이행하는 존재가 배제되며 쫓겨나는 존재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Rubin, 2015).

3. 한국 레즈비언 문화에 대한 선행연구

한국 레즈비언 문화에 대한 논의는 연구로서 수행된 경우가 많지 않다. 이에 따라, 시대별 변화나 특성에 대한 논의는 부분적으로만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식되었기에, 2000년대 초반 청소년이 접근 가능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포함되는 동성애 관련 온라인 공간은 만들어질 수 없었다. 2004년 인권위원회 제소 이후 유해 매체물 지정에서는 빠지게 되었지만(이상희, 2013), 이러한 맥

락에 따라 청소년 공간과 성인 공간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운영되는 경향이 생겼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형성이 중심적 현상으로 나타났다. 김보라(2020)에 따르면 2010년대 레즈비언 커뮤니티는 지리적 공간이 아닌 온라인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의 공간 형성은 게이와 레즈비언 문화에 일반적인 것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가진 장점은 아웃팅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이남희, 2003.4.30)는 것이며 사회적 호모포비아를 피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선택이기도 했다(이서진, 2007).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게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담론화되었다.

한국의 온라인 공간에서 기록된 레즈비언 운동 사례로는 2003년부터 끼리끼리에서 주도한 ‘아웃팅 방지 캠페인’을 들 수 있다. 2004년 4월 17일자 한겨레 신문 <왜냐면>에 게이 활동가 서동진이 투고한 ‘커밍아웃을 막으려는 기류를 비판한다’는 요지의 글에 끼리끼리가 대해 아웃팅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반박글을 게이 인권운동 단체 ‘친구사이’에 게재하기도 하였다(끼리끼리, 2004.5.2.) 이를 통해 ‘아웃팅 방지 캠페인’이 레즈비언 인권 운동의 중요한 기조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끼리끼리(2004)는 2000년대 초반까지 백 여 개가 넘는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형성되었다고 기록하였으나 해당 커뮤니티의 기록과 정보에 대해서는 현재 찾아보기 어렵다. 2000년대 초반 우리사회의 레즈비언 담론을 논의한 정경운(2002b)의 경우, 한국의 레즈비언 논의가 페미니즘 담론과 연결되기보다는 다양성을 기치로 하는 방식으로 형성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끼리끼리와 같은 단체 성명서와 입장문을 중심으로 당시 한국의 레즈비언 문화가 퀴어 연대, 노동 운동에 대한 결합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동성애자단체협의회 활동과, 끼리끼리를 중심으로 하는 여성중심 레즈비언 활동으로 나뉘었다고 보고 있다. 끼리끼리는 한국의 첫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초동회>에서 부터 ‘여성’임과 동시에 ‘동성애자’라는 레즈비언 정체성의 위치성에 대해 고민하며 여성운동단체들과의 연대를 꾀했다. 또한, 2001년 이후 끼리끼리는 주류 여성운동진영이 레즈비언만이 아

나라 소수자 여성들을 소외시켜왔다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기존 여성운동진영에 ‘속하는’ 전략 대신 여성중심 레즈비언 운동의 흐름을 만드는 전략을 선택했다(끼리끼리, 2004). 한편 2000년대 초반 레즈비언 분리주의에 대한 경계는 운동 결합 특히 노동자 운동과의 결합 문제가 중요했다고 분석한다.

윤아영(2013)은 2000년대 후반까지의 레즈비언 공간을 분석하면서 온라인 공간 외에 술집과 클럽, 바를 중심으로 하는 흥대 중심의 공간 구성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오프라인 공간에 대한 연구가 축적된 사례는 이후에도 거의 없다. 또한, 전반적으로 레즈비언 문화와 공동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대중 예술에의 레즈비언 재현이 주요 관심사로 제시되는 경향도 강하다(김보라, 2020). 레즈비언이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는 주로 심리학 연구에서 제시되어 성소수자로서의 부담감과 아웃팅의 공포가 심리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이 논의되었다(윤성옥, 성승연, 2011).

제 3 절 연구목적 및 방법

1. 연구문제

본 논문은 페미니즘 대중화 이후에 등장한 래디컬 페미니스트인 동시에 탈코르셋을 한 레즈비언, 이른바 ‘탈코비언’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그들이 표상하는 ‘진정한 여성성’과 ‘부정적인 남성성’을 살펴보고 그들의 존재가 레즈비언 문화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들과 닮은 외양을 가졌지만 또 다른, 부치가 재현되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부치라는 것이 청년 레즈비언들에게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규범이 위반되고 있는 부치의 실천을 살펴보고, 부치라는 느슨한 정체성에 포함되는 존재들을 포착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이 제기하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치는 어떻게 재현되고 있으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부치는 어떻게 실천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셋째, 부치라는 정체성은 현재의 청년 레즈비언 문화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온라인을 통한 페미니즘의 대중화를 경험하고 이에 따른 변화들을 목도한 한국 청년들 사이에서 부치가 어떻게 재현되고 의미화 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치로 정체화하는 사람, 혹은 부치로 패싱되는 사람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심층면접과 원격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페미니즘 의제를 접한 경험이 있는 청년 레즈비언들을 선정하였으며, 보조사례로 중년의 참가자 1

명이 포함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오늘날 레즈비언 문화와 청년 시기에 페미니즘의 대중화를 경험한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선정하게 되었으며, 소수의 30대 여성과 보조사례로 중년의 참가자를 포함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개인 SNS(트위터)를 통해 ‘부치로 정체화하거나 패싱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명시하였고, 이는 트위터의 리트윗(retweet) 기능을 통해 공유되었으며 그 결과 총 10명이 연구 참여를 자원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레즈비언 공동체 혹은 커뮤니티에 속한 적이 있었으며, 부치라는 정체성을 긍정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스스로가 페미니스트임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드러내지는 않더라도, 모두 퀴어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1) 심층면접

이 연구에서는 스스로를 부치라고 정체화하거나 부치로 패싱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은 2022년 8월과 9월에 걸쳐 시행되었고, 회당 1시간에서 3시간씩 진행되었다. 대면 인터뷰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8명이었으며 참여자의 거주지나 학교, 직장 근처 스터디룸에서 실시하였다. 면접 질문은 주로 현재 속해 있는 레즈비언 공동체의 유무, 부치의 정체성, 젠더 표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정체화 과정, 레즈비언 커뮤니티에 대한 평가, 탈코르셋을 향한 정서 등을 추가적으로 질문하였다. 더불어 부치의 특징, 여성의 남성성에 대한 개개인의 경험을 포착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자신이 정의하는 부치, 래디컬 페미니스트에 대한 의견, 레즈비언 문화에 대한 정동, 온/오프라인에서의 퀴어 모임이나 공동체, 각자가 상상하는 부치-팸 관계의 의미와 미래 등의 질문을 덧붙였다.

한편 연구 참여자의 직장 혹은 거주지가 연구자의 거주지와 상대적으로 먼 상황으로 인해 2명의 연구 참여자와의 인터뷰는 줌(Zoom) 프로그램

램을 통해 원격으로 진행되었다. 원격인터뷰는 줌(Zoom)의 화상 회의 기능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면접 시간과 내용은 대면 면접과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원격 면접과 심층 면접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의 인적 사항은 아래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인터뷰 참여자 일반특성

	이름 (가명)	만 나이(2022년 기준)	젠더 표현 혹은 정체성	연구참여방법
사례1	스콘	30	부치/레즈비 언	대면
사례2	수키	26	레즈비언	대면
사례3	숙자	26	퀘스처너리	대면
사례4	서아	32	레즈비언	대면
사례5	강	27	젠더퀴어	대면
사례6	이서	22	레즈비언	대면
사례7	망고	25	부치	비대면
사례8	개비	26	부치/레즈비 언	대면
사례9	인성	26	부치/레즈비 언	대면
사례10(보조 사례)	지안	52	티부/레즈비 언	비대면

2) 문헌연구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자생적인 레즈비언 문화와 공동체가 구성되는 양상과 역사를 살펴보고 커뮤니티의 역사를 발견하려고 하였으나, 기록이 남아있지 않거나 웹사이트가 폐쇄된 경우가 많았고, 아웃팅 범죄를 염려하는 레즈비언 커뮤니티의 성향 상 커뮤니티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아 블로그, 브런치, 팟캐스트, 트위터,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그 흔적을 모으려고 하였다. 또한 인권운동과 관련한 잡지, 논문, 도서, 영상 등을 수집하였으며 헬버스탐이 제안한 전통적인 인간 행동 연구에서 의도적이거나 우연히 배제된 주체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하는 일종의 청소부 방법론(scavenger methodology) (Halberstam, 2015, 40)를 사용하였다.

제 4 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서론으로 문제제기와 선행연구를 검토하였고, 연구목적과 방법을 밝혔다.

2장은 한국 레즈비언 공동체 형성에 관한 역사를 검토하고, 현재 공동체가 형성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자생적인 레즈비언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또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 속에서 드러나는 역사적인 남성적 레즈비언의 존재 ‘바지씨’의 존재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부치의 재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단순히 스타일로써 설명되지 않는 부치의 재현과 특징을 살펴봄과 동시에 부치의 실천을 살펴보면서 한국에서 재현되는 부치의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다.

4장에서는 부치를 둘러싼 담론이 형성되고 확장되는 모습을 살펴보았

다. 자신을 부치로 의미화 하는 과정의 양상을 분류하고, 탈코비언과의 차이점을 밝힘으로써 부치라는 정체성이 이에 동화될 수 없는 정체성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치의 규범이 위반되는 모습을 통해 부치라는 범주가 확장되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5장은 결론으로서 본고의 논의를 요약적으로 기술하였고, 덧붙여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제시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제 2 장 한국의 레즈비언 공동체 형성 역사

제1절 한국 레즈비언 역사 연구

1. ‘바지씨’의 출현과 레즈비언 공동체의 형성

1996년에 발간된 레즈비언 잡지 《또 다른 세상》 3호에 전해성씨가 쓴 「레즈비언 커뮤니티의 다양성」에서 1965년도에 조직된 <여운회>에 관한 기록을 찾을 수 있는데, 이해솔(1999)은 <여운회>라는 모임이 한국 사회에서 최초의 공동체적인 여성 성소수자의 커뮤니티로 간주할 수 있는 모임이라고 서술한다. 전해성의 기록에 따르면 <여운회>는 ‘여자운전자모임’을 줄인 말이며, 구성원 대부분의 직업은 택시 운전사였다. <여운회>는 전국적으로 조직된 모임이었는데, 1970년대 바지씨 ‘이목’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불온한 당신(Troubles)>의 감독 이영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국적인 모임이 가능했던 이유는 ‘구성원 대부분이 택시 운전사였기 때문에 기동성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닷페이스, 2017.7.21.). 이러한 기동성을 발판으로 레즈비언조직이라는 것이 알려지며 전국에서 암암리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가족주의의 성격을 가진 단체였다. 한 번 모임을 가지면 몇 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못 모여도 1200명-1300명씩 모였다고 한다. 가족들의 대소사를 서로 챙겨주었고, 결혼식도 왕왕 있었는데 주로 절에서 하거나 천명이 들어가는 홀이나 예식장을 빌렸다. 결혼 후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커플도 있었다. 법적 사회단체로 허가를 받으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1984-5년에 회장 선거로 인해 패가 갈리는 바람에 호지부지 해체되었다(전해성, 1996).

이 모임의 핵심적인 주체들은 ‘바지씨’였는데, 바지씨를 압축하여 설명하자면 ‘바지를 입는, 남자 역할을 하는 레즈비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바지를 입는다는 설명 뒤에 ‘남자 역할’을 덧붙이는 이유는 단순히 ‘남자 같아 보이는’ 외양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기실 사회에서 남자, 그리고

가장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미디어 스타트업 ‘닷페이스’의 영상 중 ‘옛날 레즈비언은 어떻게 살았을지 기록하는 사람들’에서 당시 바지씨였던 윤김명우씨의 인터뷰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요즘 애들은 누가 가장이니 이런 거 안 나뉘.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그런데 우리(바지씨)는 100% 다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 줬잖아. 설거지는 치마씨가 해야 하고.” (윤김명우, 출처는 닷페이스, 2019.10.30)

또한 닷페이스의 다른 영상에 등장하는 영수(가명)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우리는 (직장) 구해봤자 직장 갖기도 힘들었어, 그때는. 아주 곤란했어. 그래서 운전 아니면 할 게 없어, 솔직하게 말하면. 아니면 어디 주방에 들어가서 주방 일을 하거나. 지금은 (경제 활동이) 활발하지. 직업을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잖아. 그때 무식했었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영수, 출처는 닷페이스, 2019.10.14.)

배성민, 정희성(2019)에 따르면 당시 바지씨는 ‘여자의 몸’으로 바지를 입는다는 그 자체만으로 젠더 규범을 위반하는 ‘불온한’ 존재였다. 지금의 인식틀로 살펴볼 때 그들을 트랜스젠더 혹은 젠더퀴어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들은 스스로 ‘남자’로 호칭하지 않고 ‘바지(씨)’로 칭한다는 점에서 바지씨는 70년대 존재했던 독자적인 레즈비언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규범을 위반하는 바지씨라는 존재들은 타인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자동차라는 독립된 공간 혹은 주방이라는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일을 해야 했으므로 운전자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또한, <여운회>와 같은 대규모 모임 이외에도 70년대에는 명동을 중심으로 레즈비언들이 친목 모임을 가진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50대 레즈비언, 윤김명우 이야기’ 중 윤김명우의 증언에 따르면 <샤넬>이라

는 최초의 여성전용다방이 존재했다(박김수진, 2017). 70년대는 DJ가 트는 음악을 감상하며 차를 마시는 음악다방의 전성기였으며, 예술가들이 많이 찾는 ‘문화의 거리’였던 명동에도 음악다방들이 성행하였다(서울신문, 2005.8.19.).

이러한 자유로운 분위기가 레즈비언들에게 ‘해방구’와 같은 기능을 하였고, 1974년에는 최초의 여성전용다방 <샤넬>이 문을 열었다. 윤김명우의 증언에 따르면 처음에는 레즈비언이 아닌 여성들도 가게를 찾았으나, 나중에는 손님의 대부분이 레즈비언인 모양새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1976년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대마초 흡연이 집중단속에 적발되면서 <샤넬>은 근 2년 만에 문을 닫았다. 이때 형성된 커뮤니티는 1980년대에 명동이 쇠락하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그 후 80년대에는 레즈비언 문화의 중심이 되는 상징적인 레즈비언 커뮤니티는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이해술(1999)에 따르면 당시 서구문화의 집결지라 할 수 있었던 이태원의 게이 바를 통해 레즈비언들이 게이 커뮤니티에 합류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게이와 레즈비언이 ‘같은 동성애자’라는 의식을 공유하고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레즈비언 무리가 게이 커뮤니티에 합류할 수 있었다. 이 커뮤니티는 주로 전문직, 고소득층으로 이루어졌는데, 공동체에 대한 고민이 부재하고 소비문화의 성격이 짙었던 탓에 6개월 만에 유야무야 해체되었다.

이 시기 이후 레즈비언 담론은 80년대 후반부터 확산된 페미니즘으로 여성에 대한 고민과 90년대부터 각종 매체에서 유입되는 동성애자 성담론에 대한 고민이 결합되며 ‘여성’이자 ‘동성애자’인 레즈비언의 위치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었다(정경운, 2002b). 80년대와는 달리 90년대 조직적인 레즈비언 커뮤니티가 형성된 배경에는 1991년 11월에 형성된 ‘사포(Sappho)’라는 주한 외국인 레즈비언과 양성애자 모임이 있다. 이 모임은 회원들 간의 친목 위주의 비공개 모임이었다. 한편 소문을 듣고 찾아온 한국인들도 참여하였는데, 언어의 장벽과 문화의 이질감, 또한 친목 중심이 아닌 인권운동의 필요성 자각을 계기로 동성애자 인권운동

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레즈비언 3명과 게이 3명이 6명이 힘을 합쳐 1993년 12월에 한국 역사상 최초의 동성애자 인권운동 단체 <초동회 草同會>를 결성한다(정경운, 2002b; 한채운, 2011).

<초동회>는 왜곡된 동성애자의 이미지를 바로 알리고 오도된 에이즈 운동을 비판하는데 주목적을 두었다고 알려져 있다(이해솔, 1999). 그러나 게이와 레즈비언이 동성애자라는 정체성 아래 같이 묶이기에는 남성과 여성이 사회적으로 점유하는 위치가 다르다는 점을 절감한 그들은 2개월 만에 해체를 결정한다. 이후 게이들은 1994년 1월 남성 동성애자 인권모임 ‘친구사이’를, 레즈비언들은 같은 해 11월에 여성 동성애자 인권모임 ‘끼리끼리’를 만든다. 훗날 ‘끼리끼리’를 필두로 레즈비언 인권운동이 진행되고, ‘끼리끼리’의 레즈비언 활동가 개인들이 언론을 통해 커밍아웃을 하고 레즈비언의 자긍심을 고양하면서 한국 레즈비언 인권운동의 초석을 놓는다(끼리끼리, 2004).

그렇다면, 용어로서의 ‘부치’와 ‘팸’은 언제 등장하게 되었을까? 한채운(2009)은 잡지 ‘레즈비언 세대 간의 소통을 위한 잡지’인 ‘레인보우링’에서 한국에서 부치와 팸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계기를 사포의 결성과 그에 따른 초동회의 결성이라고 추정한다. 외국인으로 구성된 조직에서 자연스럽게 서구에서 사용되던 부치, 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그것이 전파되어 대략 90년대 중반부터 한국 레즈비언들 사이에서도 통용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이해솔(1999)은 부치와 팸이라는 용어를 비롯한 서구 이론들이 90년대 초부터 서구의 페미니즘 이론의 유입과 함께 등장하였다고 이야기한다. 한국의 레즈비언들이 서구의 페미니즘과 레즈비어니즘 이론을 접하면서 자신들의 경험을 정치화하고 확장, 발전시켜나갔다는 것이다. 이해솔은 이때 성 지향성과 성 행위, 부치, 팸, 퀴어 이론 등 레즈비언에 관한 여러 이론 및 실천양식을 접하게 되면서 다양한 레즈비언에 대한 정의와 범주에서 고민하고 또 이론적 혼란과 갈등을 겪기도 하였다고 이야기한다. 이처럼, 부치와 팸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한국 레즈비언 문화에 자리 잡았는지에 대한 자료가 부족

하여 정설은 존재하지 않지만, 90년대 이후로 부치, 펴이라는 단어가 흔하게 쓰였음은 확인할 수 있다.

2. 온라인 공동체 형성

당시 빠르게 발달하던 PC통신이 ‘동성애자 통신모임’의 등장의 발판이 되면서 레즈비언 공동체는 양적으로 팽창하게 되었다. PC통신 중에서 가장 먼저 천리안 동성애자모임 <퀴어넷>이 개설되었다. 천리안에 이어 1996년 1월 18일에 나우누리에 <레인보우>, 2월 16일엔 하이텔에 <또 하나의 사랑>이 만들어졌다. 또한, 1998년 2월 27일 PC통신사로는 후발 주자였던 유니텔에 동성애자모임인 <거치른 땅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생겼다(한채윤, 2011). 이로써 4대 PC통신망에 동성애자 통신 모임이 생긴 것이다.

PC통신 모임의 등장으로 인해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구성된 동성애자 전용 술집 등 모임 장소를 자주 방문하기 여의치 않은 지역에 사는 동성애자들도 PC통신을 통해 소통할 수 있게 된 것도 레즈비언 커뮤니티의 팽창의 큰 원인이었다. 1998년부터는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한국 최초의 레즈비언 포털 사이트인 ‘탱크걸(TankGirlsNet, 이하 티지넷)’ 등 큰 규모의 레즈비언 온라인 모임이 생겼다. 또한 다음카페, 세이클럽 등을 통해 수많은 인터넷 모임들이 생겨났으며 레즈비언 웹진 <또다른 세상>, <니아까> 등의 매체들도 등장하였다. 이러한 매체들은 동성애자들 간의 정보를 제공하고 소식을 주고받는 기능 외에도,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한 대외적 노력을 기울였다(정경운, 2002a).

그 예시로 <LBcity>라는 커뮤니티를 들 수 있다. <LBcity>는 2000년 9월에 연 종합 문화커뮤니티이다. 이 사이트는 ‘레즈비언 문화를 생산해 내고, 그 창작자들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의 도시’라는 비전을 내놓고, 광장, 마을, 도서관, 방송국 등의 카테고리를 운영하였는데, 다른 웹커뮤니티가 단순히 정보를 전달받고, 게시판에 자기 글을 올리는 수준인 반면, 이 사이트는 다양한 소통 통로를 마련하고, 입체적인 구성방식(갤러리,

방송국 운영 등)을 보여주고 있다. <LBcity>는 친목을 넘어서 레즈비언의 대안적인 삶의 모델을 찾고자 한 것이다(정경운, 2002a). 그러나 <LBcity>는 레즈비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여러 레즈비언 문화와 담론을 만들어내었지만 레즈비언 문화운동을 지원하고 ‘수익창출’을 하겠다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다. 현재 <LBcity>, <니아까>는 모두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다.

온라인 모임은 실제 현실에서의 오프라인 모임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90년대 후반에는 신촌, 마포 인근에 레즈비언 바가 성행하였는데, 대표적인 레즈비언 바로는 96년 개업하였으며 마포에 위치하였던 <레스보스>가 있다. 신촌을 중심으로 게이와 레즈비언 모두가 출입할 수 있었던 ‘이반 바’ <쇼너>, 레즈비언 바는 아니지만 여성 전용 카페였던 <라브리>가 있었다. 신촌은 젊은 층의 유동인구가 많고 술값이 술값이 저렴하여 대학가를 중심으로 라이브 공연을 하는 바, 소주방과 카페를 결합한 바 등 특색 있는 이른바 ‘이반 업소’들이 자리하는 공간이 되었다(BUDDY, 1998).

3. SNS 중심의 레즈비언 커뮤니티 형성

2010년대에 들어서 인터넷 중심의 여러 레즈비언 커뮤니티들이 문을 닫았다. 2000년대 초반에 생성된 커뮤니티 ‘미유넷’이 2013년 폐쇄되었고, 정회원 승급이 없는 상태로는 메인 화면에서 아무 것도 볼 수 없는 폐쇄적인 성격을 가졌다. 이러한 폐쇄성을 비판한 팟캐스트 ‘퀴어방송’의 DJ를 색출하여 영구정지하겠다고 선언한 적도 있는 ‘로다’도 2018년에 폐쇄되었다(언니 네트워크, 2017.3.30.).

현재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스마트폰에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어플로 레즈비언 커뮤니티가 옮겨가고 있다. 그중 가장 널리 쓰이는 어플은 2014년에 만들어진 레즈비언 랜덤 채팅 어플인 ‘탑엘’이다. 그러나 탑엘의 문법은 이전의 폐쇄적이었던 커뮤니티와 크게 다르지 않다. 탑엘은 ‘랜덤한 익명’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이 주요한 특징이다. 개발사에서

직접 밝히고 있는 탐엘의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익명으로 랜덤하게 쪽지를 보낼 수 있으며, 대화/만남 중 선호하는 소통방식을 고를 수 있고 같은 지역 혹은 비슷한 나이를 설명하여 소통 할 상대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 둘째로, ‘메가폰’이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메인화면에 모든 사용자가 자신이 띄운 메시지를 볼 수 있다. 다만 이 메가폰의 메시지는 관리자의 검수를 거치며, 사람을 특정하는 내용이 나 음란한 내용은 게재되지 않는다. 사용자들은 이러한 메가폰에 쪽지로 답장할 수 있다(리타, 2016.5.26.).

탐엘은 이름이나 별칭 없이 나이와 사는 지역만을 입력하면 계정을 생성할 수 있는 편리함을 가졌으나, 계정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나는 레즈비언입니다’라는 문장이 담긴 ‘레즈비언 선언’에 동의 버튼을 눌러야 하는 수고로움을 겪어야 한다. 이는 ‘레즈비언 선언문’을 낭독한 후 목소리를 녹음하여 관리자에게 전송,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야만 가입할 수 있는 ‘티지넷’과 닮은 모습을 하고 있기도 하다. 티지넷은 2013년 5월부터 ‘레즈비언 선언문’을 낭독하는 목소리를 녹음하여 ‘목소리인증’을 통해 회원가입을 승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호기심 많은 남성 및 이성애자 여성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그 기능만을 했을지는 의문이다. ‘목소리와 얼굴이 너무 남자 같다’는 이유로 가입이 반려된 부처들의 일화들이 여전히 전해 내려오기도 한다(언니 네트워크, 2017.3.29.). 이를 통해 ‘진짜 레즈비언’과 ‘진짜 여자’를 가려내려는 시도가 존재해왔으며, 아웃팅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의 정서가 레즈비언 커뮤니티에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탐엘’은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이전의 인터넷 커뮤니티의 폐쇄성을 따르고 있기도 한 것이다.

한편 모바일의 대중화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SNS를 통해 자신의 일상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편리성이 생겼고, SNS는 이제 놀이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사회정치적 문제를 고발하는 공론장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이종임,홍주현,설진아, 2019). 이러한 개방형 SNS인 트위터

에서 레즈비언 공동체가 형성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특히 트위터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지인 관계를 맺기 원하는 사용자가 팔로우(follow)를 함으로써 지인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쉽게 지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레즈비언 공동체들은 퀴어 콘텐츠에 대한 감상을 나누거나 정치적 의제를 공유하며 일상적 저항의 공유와 네트워킹을 하며 친목을 다진다. 특정한 인권단체나 커뮤니티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같은 관심사를 통해 서로를 묶어 주는 느슨한 공동체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트위터의 해시태그 기능을 활용해 특정 주제에 관한 내용만을 볼 수 있게 하거나 인맥을 넓히기 위해 해시태그를 사용해 스스로를 소개하기도 한다. 또한 트위터의 리트윗(retweet) 기능을 사용하여 인맥의 인맥을 소개받기도 하는 방식으로 공동체가 구성되고 있다.

제 2 절 정치적 레즈비언의 등장과 긴장

1. 레즈비언임을 ‘선언’하는 청년들

한편 2015년 페미니즘 리부트(손희정, 2017) 이후로 1020세대를 중심으로 성별 고정관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여성에게 과하게 부과된 외모 가꾸기에 대한 압박을 벗어던지자는 탈코르셋 운동이 전개되었다. 메갈리아와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1020여성들이 자생적으로 정치적 의제화한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 탈코르셋도 그 중 하나이다(김남이, 2019). 탈코르셋은 가부장제적 남성의 시선이 ‘여성적’이라고 부르며 성적 대상화로 이용한 것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모든 ‘여성성’을 탈각하게 되고 탈성별화되는 경향이 있다(김남이, 2019).

공연화(2021)는 탈코르셋 운동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4B²⁾운동을 모니크 위티그의 레즈비언 연속체 맥락에서 해석한다. 4B 운동에서 가부장제로부터 벗어나는 방식으로 여성애를 선택한 것을 급진적 여성 계급의 탈피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여성애가 어떤 의미일지, 섹슈얼리티의 차원에서 어떻게 논의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래디컬 페미니즘 입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여성 억압의 원인을 가부장제로 규정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철폐할 것을 주장한다. 한국에서 이러한 급진주의 페미니즘이 온라인 페미니즘 운동의 이론적 토대가 되면서 분리주의 페미니즘을 주창하는 여성운동가 쉐라 제프리스(Sheila Jeffreys)의 이론이 주목 받았다. 그의 저서는 열다북스라는 페미니즘 도서 출판사에서 연달아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2018년에는 ‘코르셋: 아름다움과 여성혐오’, ‘래디컬 페미니즘’이 번역되어 출간되었으며 2019년에는 트랜스젠더를 배제하는 페미니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젠더는 해롭다’가 출판되었고 2021년에는 ‘레즈비언 혁명’이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2) 비혼, 비연애, 비섹스, 비출산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언급된 4가지 실천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표명할 때 사용된다.

이렇게 한국의 온라인 공간에서 래디컬 페미니즘과 정치적 레즈비어리즘, 그리고 트랜스젠더 배제적인 사상이 결합되면서 자신을 ‘TERF 이자 레즈비언’이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였다. 김지혜(2021)은 “‘랜팸’ 정치학은 좋은 인간이자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성찰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부과되는 도덕적 검열과 혼동한다”며 이러한 혐오적 시선을 비판한다. 이른바 TERF들은 오로지 ‘여자의 몸으로 여자를 사랑하는 여자’만을 레즈비언으로 정의한다. 또한 트위터, 인스타그램, 브런치와 같은 플랫폼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너도 레즈비언이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 성신여자대학교 래디컬 페미니즘 동아리 ‘RADSBOS’에서는 ‘야, 너도 레즈비언 할 수 있어!’라는 연재물을 만들어 ‘레즈비언 이 된’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이성애를 거부하는 여성은 누구나 자유의지를 통해 레즈비언이 될 수 있다고 설득한다(RADSBOS, 2021.3.2.).

한편 2019년 4월 26일에는 세계 레즈비언 가시화의 날을 맞아 ‘레즈비언데이 기획단’을 중심으로 레즈비언임을 선언하는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이 실제로 오프라인 공간에 모여 ‘한국 레즈비언 선언문’을 낭독하였고, 이를 트위터 계정에 공유하기도 하였다. ‘한국 레즈비언 선언문’은 1970년 5월 1일 뉴욕에서 열린 제2차 여성연합회의(Second Congress to Unite Women)에서 선언된 래디컬 레즈비언 선언문(The Woman-Identified-Woman)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와 구분되는 차이점이 분명 존재한다. 다음 [그림 1]은 트위터에 공유된 ‘한국 레즈비언 선언문’ 전문의 이미지이다.

레즈비언 선언문

2019. 04. 26

먼저, 오랫동안 이성애 강요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에 의해
죽임당하고 결혼으로 결박당하고 고정강간 당했으며,
레즈비언 혐오로 차별과 고통을 겪은
레즈비언 자매들에게 위로와 추모의 뜻을 보낸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불행을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되새기고자 한다.

우리는 마침내 무지개를 표상으로 하는
퀴어 커뮤니티를 버리고 도끼 라브리스를 들었다.
그 도끼로 여성 레즈비언 억압의 근원인 가부장제와
여성혐오의 뿌리를 찍어 도려내기로 했다!

우리는 사포의 후예이고,
여성해방을 위해 최전선에서 싸우는 전사 아마조네스이며,
남성지배라는 오욕의 강을 건넌 다이크이자
가부장제 분쇄를 실천하는 '레즈비언'이다.

우리는 여자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남자의 지배를 거부하며
사회가 강요한 자기혐오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을 중심에 두는
창조적이고 독립적인 여성들이다.

레즈비언은 의미 그대로 남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부장제를 분쇄할 열쇠이자 여성해방의 핵심인
여성주의, 탈이성애, 자매연대주의의 실천인
'레즈비어니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이끌고자한다.

지금까지 남성 우월주의가 지배하는 성차별적인 사회는
우리의 레즈비어니즘을 '페니스'를 흉내 내거나
선망하는 존재로 인식시켰고,
남자를, 남성성을 동경하는 존재로 폄하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레즈비어니즘은 남성성의 복제도,
여성해방에서 부차적인 문제도 아니다.
여성해방으로 향하는 중요한 실천이다.

레즈비언 선언문

2019. 04. 26

여성은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가부장제를 지탱하기 위해
남비했던 감정적, 경제적, 성적 에너지의 방향을
바꾸어 새로운 창조적 존재가 될 수 있다.
레즈비언은 이미 창조적인 자아를 이끌어냈으며
남성이 만들어 놓은 이 불평등한 체제와 구조에서
연결된 문제의 핵심을 끊어내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여성해방에 필요한 지지를 나누며
우리의 에너지를 자기 자신과 자매들에게 향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매애다.

더불어 우리는 여성에 대한 모든 착취와 폭력,
그리고 젠더론을 반대하며 레즈비언을 지우기 위한 끊임없는 시도에 대항한다.
코튼실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퀴어 내 성범죄를 비롯하여
여성혐오 비판 공론화를 입막음하기 위해 여자만을 TERF로 낙인찍고
혐오자몰이를 하는 남성중심적인 퀴어진영은
성역할을 충실히 따르는 가부장제의 유사품일 뿐이다.
우리는 이러한 남성 중심적인 퀴어 문화 향유자들의 만행으로부터
레즈비언의 인권과 문화와 역사를 지켜내고자
분리주의를 선택하였다.
우리는 모든 만행을 지속적으로 고발하고 대항하며 연대하고 싸워나갈 것이다.

또한 가부장제 남성집단의 레즈비언 교정강간을 없앨 것이며, 디지털 성범죄의 무차별적
촬영, 유포와 시청 등 남자들의 더러운 욕망을 박살 낼 것이다.

성차별로 인한 노동임금의 기형적 형태 탓에 발생하는 레즈비언의 경제적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성취할 것이다.

그리고 저출산을 빌미로 이성 결혼제도를 장려하면서 비혼/반혼/레즈비언 1인가구의
시민권 배제를 즉각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생활연대자법 또한 제정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해 6조 6258억원 규모의 세계 성산업 6위인 청소년과 성인여성에게 대한
남성 페이강간을 없앨 것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비롯한 강력범죄의 가해자는 대부분 남성이다.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를 경계하고, 마땅한 법적 처벌과 예방을 요구할 것이다.

레즈비언 선언문

2019. 04. 26

그리고 끊임없는 여성 성적 대상화와 여성 혐오적인 대중문화,
가부장제 강요와 코르셋 씌우기에 저항할 것이며
여자의 앞길을 막는 유리천장을 산산이 깨부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여남평등이 아니다.

이제껏 오랫동안 빼앗겼던 몫을 모두 되찾기 위해 전면적으로 투쟁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의 모든 자매들에게 연대할 것이다.
또한 자매들에게 요구한다.
레즈비언이 되기를 두려워 말고
남자를 먹여살릴 노동과 사회구조를 떠받드는 것을 거부하라!

코르셋을 주체적으로 벗어 던지고 남성에게 자아를 의탁하지 말라!
남성의 승인과 정의를 거부하고 여성의 언어로 무장하여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나가라!

우리는 매년 레즈비언 가시화의 날에
여성혐오적 구조물을 하나씩 철폐하고 권력을 쟁탈하겠다.

그리하여 이 땅의 남성중심주의와 가부장제를 몰아내고
여성해방을 함께 맞이하여 여성공동체를 건설할 것이다!

이에 오늘, 선언한다! 이제 우리의 몫을 모두 되찾아 올 것을!
이에 오늘, 선언한다! 이제 우리의 존재가 지워지지 않을 것을!

2019. 4. 26
제1회 레즈비언 가시화의 날을 맞이하여
레즈비언데이 기획단 작성

1970년의 래디컬 레즈비언(Radical Lesbians)의 선언문은 강제적 이성애 규범에 대한 분노와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그들은 해당 선언문을 통해 사회가 남성 동성애와 레즈비어리즘을 받아들이는 관점이 다르다는 점을 짚으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여성 억압을 꼽는다. 그들은 자아의 부재와 자기 증오의 뿌리를 남성이 만들어낸 정체성에 자신을 의탁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이라고 보며, 이성애에서 해방되는 것이 그 해답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2019년의 한국의 레즈비언 선언문은 남성 동성애 뿐만 아니라 ‘퀴어 커뮤니티’ 전체를 배척하고 ‘순수한 여성으로 구성된 레즈비언 커뮤니티’를 향한 이상향을 드러내고 있다. 동시에 자신들은 남성에게 자아를 의탁하거나 남성을 모방하는 것이 아닌 ‘순수한 여성집단’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더 나아가, 단순히 여성의 자아 탐색에 관한 내용을 넘어 시의성 있는 여성 임금 차별, 디지털 성범죄, 생활동반자법 제정, 성매매와 같은 이슈들을 언급하며 이를 정치적 레즈비언이 되는 것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에 대한 차별의 문제를 레즈비언이 되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목적의식으로 스스로 레즈비언임을 정치적으로 선언하는 청년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에게 레즈비언이 된다는 것은 정체화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여성해방을 위한 행동강령을 따르는 과정이자 결과이기도 하였다.

2. 레즈비언 문화 지형 변화와 긴장

이렇게 ‘정치적 레즈비언’임을 선언하는 청년들이 생기면서 한국 레즈비언 문화 지형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한국 레즈비언 하위문화에는 보통 세 가지 범주의 자기소개 용어가 존재하고 있었다. 전천, 부치, 펌이 그것이다. 요컨대 부치는 ‘남성스러운 레즈비언’, 펌은 ‘여성스러운 레즈비언’, 전천은 전천후(全天候)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본래 ‘어떤 날씨

에도 제 기능을 다함'이라는 뜻인데, 부치와 펨의 경계 모두를 오갈 수 있는 레즈비언을 일컫는다. 물론 이러한 구분이 너무 경직되어 있으며 같은 여성들 사이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굳이 구분해야 하느냐는 비판은 '페미니스트 저널'인 '일다'에 연재된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있었다(김혜정, 2004.12.05.).

그러나 정치적 레즈비언이 등장한 이후 그들은 '구성된 젠더' 그리고 '구성된 남성성과 여성성'의 개념 자체를 모두 부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주장이 힘을 얻으며 부치가 '남성적인 레즈비언'이라고 불리는 데 자체에 반감을 표하는 레즈비언들이 늘어났고, '남성적인 것' 혹은 '여성적인 것'이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천, 부치, 펨을 나누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기소개 용어를 거부하고, 교류하고 싶은 상대를 찾기 위해서 외모나 성격뿐만이 아니라 '성향', 다시 말해 '정치적 성향'을 우선시 하는 주체들이 생겼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레즈비언 커뮤니티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긴장이 일어나고 있다. 자신을 '래디컬 페미니스트이자 레즈비언'이라고 소개하는 이들은 소개 글에 곧잘 '젠더론 안 사요'라는 말을 포함 시킨다. 이는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이 되었는데, 자신은 젠더퀴어 혹은 트랜스젠더를 배격하며,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당사자 혹은 이들에게 우호적인 사람들과는 교류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선언이다.

“젠더론 안 사는 탈코비언 각자 사는 얘기 구경하고 떠드는 거 좋아해요 같은 조건의 트친 구인합니다 성인 이상만요” (출처: 트위터)

“2n 램렛 탈코비언 젠더론 X, 남자 X” (출처: 트위터)

“아 탈코비언 트친소 가보자고~!~!~ 젠더론 안사요 xy 안사요 그냥 남자

안사요 남혐? 합니다 강 디폴트임” (출처: 트위터)

이 중 ‘랜렛’이란 ‘래디컬 페미니스트이자 레즈비언’이라는 뜻으로, ‘랜렛’이라는 두 글자를 통해 짧고 간결하게 자신의 정체성과 신념을 드러낸다. 또한 ‘젠더론 X, 남자 X’라는 말은 트랜스젠더를 배격한다는 의미임과 동시에 ‘남자’와 관련된 모든 특성과 자신을 분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그러나 레즈비언 커뮤니티는 오로지 자신을 순수한 여성으로 정체화하는 레즈비언만 존재한다고 하기 힘들며, 젠더퀴어나 트랜스젠더 당사자, 바이섹슈얼 또한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래디컬 페미니즘을 반박하기 위한 퀴어 정치학의 이론적 틀로 주로 ‘교차성 페미니즘’을 삼는다. 트랜스 혐오적인 표현을 마주하지 않고,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은 TERF를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마주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렇듯 레즈비언 커뮤니티 내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회피하는 동시에 자신과 비슷한 페미니즘 이론들을 가진 사람과 교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거름망’이 필요한 현상이 벌어졌다. 이러한 거름망으로 작용하는 단어로는 ‘젠더론’, ‘부치-웍’, ‘래디컬 페미니즘’, ‘교차성 페미니즘’, ‘탈코비언’ 과 같은 단어들이 있다. 더불어 전통적인 부치-웍 관계에서도 계속된 균열과 위반들이 일어나며 한국의 레즈비언 문화지형에는 끊임없는 긴장과 협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후술하였다.

제 3 장 부치 경험과 해석

제 1절 부치 스타일

그러나 ‘남성적인 레즈비언’이라는 짧은 어구로 표현되기에는 오늘날 부치라는 정체성은 복잡하고 다양하게 재현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최근 한국 20대-30대 레즈비언들 사이에서 부치가 어떻게 인식되고 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1. 여성성 표현을 둘러싼 긴장

2015년 페미니즘 리부트(손희정, 2017)를 전후로 부치-웹 관계가 규범적으로 구성된 남성성과 여성성을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이 조금씩 거세지면서, ‘부치’라는 용어를 피하게 되는 경향이 생겨났다. 일부 레즈비언 랜덤 채팅 어플이나 커뮤니티에서는 부치, 웹이라는 단어 자체가 금지어가 되기도 하였다. B 온라인 커뮤니티는 공지 글을 통해 부치, 웹은 레즈비언 여성들을 이성애규범적인 틀에 가두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내에서도 지양되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는 필요했기에, 레즈비언 공동체 사이에서는 부치라는 용어 대신 ‘머짧’(머리가 짧은의 줄임말)이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쓰이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머짧’의 문화적 의미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을까? 더위키의 성소수자 은어 편에서는 ‘머짧’을 ‘머리가 짧은 스타일을 가진 경우를 의미한다(더 위키, 2022.7.20.). 티부(티 나는 부치)와는 의미가 다르며, 부치와 웹 성향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머짧’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스타일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만 제공할 뿐, 부치 혹은 웹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려는 시도인 것이

다.

연구 참여자 망고는 ‘머짧’이라는 단어는 부치와 단순히 머리가 짧은 레즈비언을 구분 짓기 위해 쓰이며 ‘머리가 짧은’이라는 표현 뒤에는 ‘여자’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뭐 그게 저는 약간 머짧이에요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게 물론 잘 팔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성사회에 속하고 싶어서 그러는 느낌도 좀 있거든요. 여성주류 사회, 여성 호모소셜 나는 여전히 속해 있어. 나는 머짧이지만 여전히 그런 주류 사회에 속해 있고 나도 되게 친한 여자친구들 많아 이런 느낌으로. 나 되게 남자 같지 않아 이런 느낌인 거 같은데 저는 그걸 굳이 그렇게 어필해야 되나 싶고 그리고 저도, 저는 여성주류 사회에 못 섞였었어요. 그래서 부치라고 말하는 게 훨씬 편해요. 나는 부치고 여성 사회에 못 섞였어. 그리고 너네 아마 그 펌들의 여성 호모소셜에도 못 섞일 거야라는 걸 일부러 강조해서 말을 해주고 싶거든요. 그게 더 편하고 저를 이해시키기가. 머짧이라고 했을 때 도대체 뭘 뭘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머리 길이 말고는. 저의 삶의 태도를 알 수가 없잖아요. 머짧 가지고는. (망고)

망고는 ‘머짧’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에 비판 받는 부치-펌 관계에 자신은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레즈비언사회에서 비판을 받지 않고 원만하게 섞이려는 시도라고 이야기한다. ‘머짧’이라는 용어 뒤에 ‘여자’라는 고정되고 공통된 정체성이 숨겨져 있어, 그러한 단일한 여성들의 사회 속에 자신이 안전하게 포함되고 있음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또한 ‘머짧’은 자신이 살아온 역사와 자신의 욕망, 섹슈얼리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함구하는 표현이다.

부치라고 하면 여자 밖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적대시 되는 게 더 싫어서 머짧이라고 본인들도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저는 좀 좇까라 이런 느낌이에요. 적대시할 거면 하고. 저를 어차피 오프에서 부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적대시할 사람들이랑, 저를 적대시할 사람들이랑 어떻게 섞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랑 섞여서 뭐가 좋지? 내 인생에 뭐가 좋지? 라고 생각을 하니

까 빨리 걸러내고 싶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망고)

지금 뭐 제 여자친구가 좀 어리거든요. 여자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실제로 이렇게 머짧 이렇게 쓴다던데요. 부치 대신 머짧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머짧 펴들은 울겠네라고 했었는데 (강)

강은 이십대 초반의 레즈비언들 사이에서 부치의 스타일을 표현하고 싶지만 부치의 정체성을 표현하지 않으려는 시도로 ‘머짧’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점을 이야기 하면서 ‘머짧 펴들은 울겠네’라는 대답을 했다고 한다. 즉 머짧 뒤에는 여전히 정체성을 나타내는 펴 혹은 부치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용어를 붙일 수 있으며 머짧 자체가 외모 외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함구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 시킨다. 이는 부치 혹은 펴이 단순히 머리 길이로 나누어질 수 없는 정체성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왜 자신을 부치와 구분 짓고 ‘머짧’이라는 단어로 자신의 외양만을 에둘러 표현하는 것일까? 이는 부치라는 정체성은 오래전부터 여성을 욕망해온 주체로써 어딘가 튀는 존재라고 인식되며, 그와 동일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겉모습을 훑내 내는 것은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망고는 부치가 ‘여자 밖의 존재’로 상상되어진다고 표현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을 부치라고 소개할 때 부치라는 용어의 역사 속에서 이해되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 사이에서 ‘튀는 존재’인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더 쉽다고 말했다. 자신을 부치라고 소개한다는 것은 여성이라는 단일하고 고정된 주체를 상상하는 이들과 자신은 섞일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망고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부치라고 소개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레즈비언사회에서 ‘머짧’이라는 단어는 부치라는 정체성과 단순히 머리가 짧은 여성 레즈비언을 구분 짓기 위해 쓰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부치 정체성에는 머리가 짧거나 바지를 입는다는 식의 외양을 넘어서는 부치 특유의 특질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강은 부치에게 끌리지만 부치와 동행함으로써 튀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다면 ‘긴머부’(긴 머리의 부치)를 만나는 선택지가 있다고 말한다.

근데 내가 정말 티부를 좋아하는데 뭐 그럴 수 있어. 나는 부치를 좋아해. 부치가 너무너무 좋아. 근데 나는 벽장이야. 그래서 티가 나면 안 돼. 사람들이 막 머리 짧은 여자 보면 레즈비언인 줄 알잖아. 라고 생각을 하면 긴머부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강)

강은 ‘긴머부’의 존재를 언급하면서 단순히 머리 길이와 같은 스타일이 부치 정체성의 전부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한다. 부치란 고정되지 않은 정체성이기 때문에 현대 한국 레즈비언 문화에서는 이렇듯 머리가 긴 부치, 마초적이고 권위적이지 않으며 장난꾸러기 아이 같은 모습을 한 부치와 같이 전통적인 부치 규범을 위반하는 부치들 또한 부치 정체성에 포함시키기 위해 수식어를 사용하여 각각 ‘긴머부’, ‘꾸러기 부치’ 등의 새로운 용어들을 만들어내고 이를 계속해서 변형해 왔다.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 들어 ‘머리가 긴 부치’, 즉 ‘긴머부’를 선호하는 레즈비언들이 늘어났으며, 소위 ‘긴머부’에 대한 인식이 2010년대 초반과는 상당히 달라졌다는 점이다. 2011년 발행된 레즈비언을 다룬 잡지 ‘레인보우 링’ 시즌 3 2호에는 ‘머리 긴 부치의 구인 광고’라는 글이 실렸는데, 그 내용을 일부 발췌해보면 다음과 같다.

머리카락이 짧은 사람이 모두 부치는 아닌 것처럼 모든 부치가 머리카락이 짧아야하는 것도 아닌 것을. 이 이상한 공식이 언젠가부터 굉장히 당연시 여겨져 ‘머리카락이 길면 어떻게 긴 머리카락으로 부치를 하느냐’는 당황스러운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 (중략) 당신이 내게 반할 일은 얼마든지 있다. 머리카락이라는 장애물은 건너차고 어서 내게로 달려오라, 나는 여기서 당신을 위해 두 팔을 벌리고 있으니.(레인보우 링, 2호, 2011)

이를 통해 당시만 해도 ‘긴머부’라는 단어는 통용되지 않았으며, 부치란 으레 머리가 짧은 사람들을 나타내는 말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약 십년 동안의 시간에도 부치의 재현양식과 부치를 구분

짓는 기준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부치의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오히려 전통적인 부치 규범에 부합하는 부치들을 나타내기 위해 ‘티부’(티 나는 부치)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티부’는 부치라는 용어 앞에 ‘티 나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만든 용어인데, 여기서 ‘티가 난다’는 말은 ‘레즈비언 티가 난다’라는 뜻이며 보기에 어딘가 퀴어하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티부’란 이성애규범적인 사회에 자연스레 녹아들지 못하고, 성별이 읽히지 않거나 여성으로 패싱되지 않는 남성적인 외모를 가진 부치들을 의미한다. 현재는 부치라고 해서 모두 천편일률적으로 머리가 짧고 가죽재킷을 입는 등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전통적 규범을 따르는 부치들을 가리키기 위해 부치 앞에 ‘티 나는’이 붙는 것이다. 부치라는 용어는 반드시 남성적인 외모를 담보하지는 않지만, 퀴어한 특징이 재차 강조되는 ‘티부’라는 용어는 그 주체가 반드시 짧은 머리를 하고 남성복을 입으며, 남성적인 어투와 행동 양식을 사용하는 레즈비언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2. ‘일스’와 이분법적 성정체성으로 패싱되기

그렇다면 ‘긴머부’가 수요가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날 레즈비언 커뮤니티 대에서는 연애대상을 찾을 때 이러한 ‘티부’를 기피하고 대신 ‘일스’(일반스트, 일반st 의 줄임말로 이반 티가 나지 않는, 즉 성정체성과 성지향성이 의심할 여지없이 시스젠더 이성애자 여성으로 간주되는 레즈비언)를 선호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긴머부’와 ‘일스’가 선호되는 이유에는 비슷한 맥락이 존재한다. 레즈비언, 넓게는 여성애자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팟캐스트 ‘생방송 여자가 좋다’ 10화에서는 레즈비언 하위문화 안에서 사용되는 여러 용어를 정리하는 가운데 ‘일스’를 ‘대기업에 다닐 것 같은 여자’라고 정의하고 있다.³⁾ 대기업에 취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고급교육과정을 문제없이 수료한 엘리트적인 면모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성의 규범들을 잘 준수하는, ‘티가 나지 않는 레즈비언’라는 뜻이다. 레즈비언 ‘티가 나는’ ‘티부’보다는 이러한 ‘일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티부 죄송’이라는, 파트너로써 티부는 사절한다는 뜻의 어구는 레즈비언 문화 속 하나의 밈(meme)이 되었다. 연구 참여자 수키는 레즈비언 랜덤 채팅 어플인 탐엘의 이용자인데, 자신이 체감하기에도 레즈비언들이 ‘티부’보다는 ‘일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서 두 글자는 답장하지 말라는 식으로.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부치 말고 일스만 답장 줘요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부치만 답장 줘요가 일스만 답장 줘요보다 훨씬 적어요. (수키)

여기서 ‘두 글자’는 부치라는 단어의 글자 수를 의미하며, 부치를 예들려 말하는 표현이다. 수키는 부치 중에서도 티 나는 ‘티부’가 기피되는 현상의 원인으로 아웃팅의 두려움을 꼽는다.

그런 머리 짧은 친구들만 있으면 다 폐미 집단, 레즈 집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남들 눈에 쉬운 것처럼 저도 알기 때문에. 그게 뭐 마냥 기분이 100% 나쁠 수도 없고. 근데 그러면서도 그냥 부치는 원래 레즈비언 사회에서 가시화 같은 존재니까 레즈비언 성의. 그렇게 따지면 그게 가시화되는 게 부치이기 때문에 이 부치를 레즈비언들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느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키)

수키는 이성애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외모를 가진 레즈비언이 포함된

3) 생방송 여자가 좋다. 10 화 “야 거기 머리 짧은애” “네?” “웃겨봐” “네?” 생방여 첫 게스트! 유사부치 스탠드업 코미디언 YenaChoi (최예나). (2022. 5. 3.) (<https://www.podbbang.com/channels/1783566/episodes/24339747>).

우리는 길거리에서 눈초리를 받기도 하고, 레즈비언이라는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수키는 이를 ‘걸어다니는 커밍아웃’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회규범에 들어맞지 않는 이질적인 외모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레즈비언일 것이라는 의심을 하게 되고 마치 그들에게 커밍아웃을 하게 되는 모양새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티 나는 부치 혹은 그의 파트너에게 불편한 상황들을 초래한다. 수키는 평소 쉽게 읽히지 않는 성별로 인해 곤란한 상황을 겪은 적이 많았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와 불편을 겪는다고 말한다.

저는 그런 식당이나 이런 데서 남자라는 오해를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 여자친구랑 밥을 먹는데 뭐 잘생겼네 남자 애가 잘생겼네 군대 갔다 왔어? 택시 탔는데 군대 갔다 왔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진짜 많을 때가 있었어요. (중략) 근데 그런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한번 보고 말 사람들이 너무 남자로 오해해서 택시를 타는 게 좀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었고. 그냥 말없이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중략) 공중 화장실에서 그 남자가 들어왔다는 식의 이렇게 여기 한번 표지판 한번 보고 여기 여자 화장실 맞나 자기를 의심하면서. 아니면 저한테 “여자 화장실인데.” 이렇게 하면 “저 여자예요.” 그냥 일부러 그래서 술집 화장실에 여자들이 좁은 데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냥 나도 술 취했고 그래서 짜증나서 그냥 들어가면서 이미 오해받는 그게 벌써 들어가기 전부터 스트레스 받아요. 들어가면서 “저 여자예요.” 하면서 들어가서 이제 불일 보고 나오죠. 그런 거가 되게 스트레스 받죠. (수키)

수키는 특히 여자친구와 함께 있을 때 타인이 자신을 ‘남자친구’라고 호명할 때가 있는데, 그때 그 호칭을 인정할 경우 자신의 정체성과 지향성을 부정하는 것이 되며, 여자임을 밝히고 나아가 동성커플임을 밝힐 경우 낯선 이에게 커밍아웃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척 난감하고 불편하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아웃팅에 대한 두려움의 정서가 레즈비언 문화에서 여전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남자로 완전하게 인식되지 않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남성적 표지들을 활용하면서 모호한 성별을 재현한다. 그 결과로 레즈비언 하위문화

의 존재와 행동 양식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부치의 몸과 스타일에서 한국 성인 남성의 규범에 미치지 못하는 특질, 예를 들면 평균적인 남성보다 작은 키 등의 특질을 찾아 부치를 성인 남성에는 미달한, 그러나 성인 남성이 되어가는 과도기적인 청소년 남성으로 주로 패싱 하기도 한다.

근데 저도 확실히 제가 성인 남자로 패싱을 안 당해요. 보통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택시를 타도 무조건 반말을 하시고, 근데 반말을 하시는데 절대 성희롱은 받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죠. (중략) 아니면 일본인이라고 생각해요. 막 외국인. 일본 남자들이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제가 옷도 빈티지 일본빈티지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막 일본어로 말 걸고, 아니면 정말 뭐 제가 제 세계를 사러 갔는데 엄마가 뭐 사오랬어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다가 제가 이제 계산하면서, 근데 저는 그러면 진짜 맞춰드려요. 아 엄마가 피지 사오랬어요 이려고. (웃음) 맞춰 드리는데. 그럴 때 이제 지갑 뺐는데 제 민증 있으면 너무 깜짝 놀라시면서 너무 미안하다고. 자긴 진짜 학생, 남학생인 줄 알았다 막 그러시는데 오히려 그럴 때 좀 불편하죠. 그냥 저는 엄마의 피지 심부름을 온 남중딩 하면 되는데. 그게 더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별 탈 없이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럴 때 여친이 있거나 아빠가 있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 사람은 저보다 더 기분 나빠 하거든요. 막 주인장한테 뭐라고 그러고. (망고)

망고는 손쉽게 읽히지 않는 정체성으로 인해 초래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남자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패싱 된 성별에 맞추어 행동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여자친구나 가족이 동행할 때는 그러한 패싱의 영향이 주변인들에게까지 미치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심화된 불편을 겪는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렇듯 ‘티 나는 부치’가 기피되는 이유를 아웃팅의 위험 또는 낙인으로 꼽으며 이러한 불편을 자신이 직접 겪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티 나는’ 사람과 교제하고 싶지 않아하는 이들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말한다.

저는 일단 티부 죄송하다는 거는 사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막 꼴 보기 싫어하

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다녀봐서 알거든요. 아 이 사람들이 나랑 다닐 때 얼마나 불편을 겪는지를.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 불편하게 연애하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들도 굳이 부치 혐오를 하지 않아도 티부 죄송이라고 하더라고요. 티 나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않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막 피어싱 타투 많은 사람들도 안 좋아해요. (망고)

이를 통해 ‘긴머부’ 혹은 ‘일스’가 선호되는 이유로 ‘티가 잘 나지 않기 때문’을 꼽을 수 있다. ‘티가 잘 나지 않는’ 여성들 간의 관계는 타인들이 쉽게 성애적 관계로 상상하지 않기 때문에 아웃팅의 위험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3. 부치의 남성성 재현 양식

최근 부치의 남성성은 다양한 양식으로 재현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요즘 ‘인기 있는 부치’에 대해 공통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바로 ‘세련된’과 ‘아이돌’이라는 표현이다.

왜냐하면 레즈비언들이 말하는 부치들은 좀 남자보다 더 뭔가 미소년스럽고 그러면서도 좀 몸도 좋고 한 그런 걸 보면서 존섹존멋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존섹존멋 때문에 부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략) 당연히 잘 팔리죠 NCT 부치들이. 근데 약간 내적인 것도 당연히 사람들이 볼 텐데 그냥 일반 일시적인 인기 순간적인 인기는 당연히 여기에 몰리죠. (수키)

연구참여자 수키는 요즘 인기 있는 부치의 특징으로 ‘미소년스럽고 중성적인 매력’을 꼽는데 구체적으로 아이돌 그룹 NCT의 예시를 든다. NCT는 한국의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 ‘SM엔터테인먼트’에서 기획한 보이그룹으로, 그룹명인 NCT는 ‘Neo Culture Technology’(네오 컬처 테크놀로지: 새로운 문화 기술)의 약자이다. ‘새로운’ 이미지를 표방하는 이들은 특유의 미래지향적인 세련된 스타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NCT의 퀴어 팬덤은 2018년에는 'NCT QUEER'라는 이름으로 퀴어 팬덤 트위터 계정을 만들고, 약 35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금해 서울과 대구 등의 퀴어문화축제 위원회에 후원금을 전달했을 정도로 팬층이 두텁다(권지미, 2021). K-POP 아이돌을 퀴어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도를 한 저서 '퀴어돌로지'에서 권지미는 'NCT를 좋아하는 레즈비언들은 NCT 중 비교적 더 중성적이고 무성적인 느낌 혹은 여성적인 느낌을 주는 몇 멤버들을 레즈비언 부치 등으로 해석하면서 일명 '부치 착즙'을 하곤 했는데, 그들도 분명 그 멤버들이 사회적으로 남성임을 잘 알고 있었지만 레즈비언으로서 자신의 욕망을 투영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서술한다(권지미, 2021). NCT를 욕망하는 레즈비언은 NCT를 부치 스타일로 해석하거나, 이렇게 해석된 스타일을 모방하기도 한다.

제가 엔시티를 조금 좋아하는데. 거기서 거기 텐 아세요. 텐? (개비)

연구 참여자 개비는 NCT의 멤버 중 한 명을 자신의 이상적인 스타일의 롤모델로 삼고, 그에게서 '부치스러움'을 발견하여 이를 흉내내고자 한다. NCT가 제공하는 세련되고 도시적이면서 중성적인, 평범하지 않은 '판타지적인' 이미지를 부치들은 자신의 남성성 재현의 자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요즘 레즈들. 막 최근 뭐 한 스무살쯤 된, 00년생 01년생 이런 레즈들은 정말로 그게 진짜 부치인 줄 알고. 오히려 막 티부들을 한남부치라고 막 엄청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중적인 거 같아요. 그런 부치 되게 이쁜 부치 저는 부치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들을. 되게 이쁘장한 부치는 남돌같다고 좋아하면서 특히 NCT 파는 친구들. 그러면서 원래 우리의 그 큰 형님이셨던 그런 티부들한테는 아 너네는 가부장 부치고 한남 부치다 이러면서 엄청 싫어하고 이래서 좀 이중적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망고)

한편 망고는 '예쁘고 세련된 부치'만이 부치 이미지로 대표되고 인기를 끄는 현상을 비판하면서 부치의 남성성 재현이 단일한 '매끈한 이미지'로

귀결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기도 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 획일적인, 아이돌스러운 미형을 갖추는 것이 오히려 다양한 남성성과 ‘티 나는’ 부치의 재현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꼭 인기를 위해서만이 아니더라도 부치의 재현은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남성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개비는 자신이 구하고자 하는 남성성은 ‘트윙크 바텀’의 남성성이라고 이야기 한다. ‘트윙크’란 게이 문화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보통 마른 체구에 어려보이는 외모를 가진 게이를 일컫는 용어이다.

근데 저의 추구미는 아주 남성의 여성성이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아주 트윙크 이 머리도 사실 어떤 머리냐면 트윙크 바텀 머리, 이게 트윙크 바텀 머리 해달라고 한 거거든요. (개비)

개비는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성질은 ‘트윙크 바텀’의 성질을 닮아있다고 이야기하며 실제로 ‘트윙크 바텀’의 사진을 가지고 미용실을 방문하며 똑같은 스타일을 요구한다고 이야기한다.

구체적인 얘기가 안 떠오르는데 아무튼 아무튼 제가 아무리 트윙크 바텀 머리를 하고 그리고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골격이 다르고 이건 그냥 조금 더 저의 특징이기도 한데 골격이 다르고 그래서 아무리 해도 뭔가 이렇게 빼짝 마른 성별 표지가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몸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뭔가 성별이 보인단 말이죠. 몸이 이 몸이. 그런 점에서 특히 근데 부치는 엉덩이가 크면 정말로 꼴 뵈기가 싫잖아요. 싫잖아요가 아니고 저는 그렇거든요. (개비)

개비는 자신의 몸에 여성의 성별 표지가 드러나지 않기를 희망하지만 그 반대항에 반드시 시스젠더 이성애자 남성의 몸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개비가 추구하고 표현하려는 것은 오히려 귀여운 남성의 젠더이다. 이는 부치가 반드시 신화적인 남성의 몸을 반드시 추구하는 것이 아니며, 그 재현의 양식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또 다른 연구 참여자 망고는 남자와 남성성의 개념은 다르다는 점을 짚으며 ‘남성스러운 레즈비언’이라는 표현에는 공감하지만 부치가 ‘남자 같다’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저는 남자와 남성성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성성은 구성되어지는 거고. 남자는 남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남자를 따라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남성성이라는 어떤 관념이 이미 만들어져있는데 그게 남자의 것만도 아니고 아무튼 그런 특질들을 가지고 있는 레즈비언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게 편한데 이거를 그냥 언어, 이렇게 딱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어 그럼 남자같은 레즈비언인거야? 남자, 뭐 남자역할 하는 레즈비언인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 싫어하는 거겠죠. 근데 그냥 남성성에 대한 개념의 부재가 문제가 아닌가. (망고)

즉 부치의 젠더 표현의 원본은 ‘남자’라고 할 수 없었다. 망고를 비롯한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남성성과 남자를 분리 가능한 개념으로 여기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수키는 부치를 자신의 언어로 재정의하며 의도적으로 남자 혹은 남성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수키는 남성성이 남자라는 존재에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단어라고 느끼고 있고, 사회가 남자에게 용인하는 폭력성과 같은 부정적인 성질들과 부치의 성질을 연관 짓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어느 정도 우리는 보고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 남성성의 그런 것들을 그게 좀 사용되는 거지 절대로 그걸 다 그대로 답습한 다거나 어느 정도 차용한다고 생각해요. 남성성을 차용한 거지 그리고 남성성이라는 게 남성만이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닌데. 저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남성성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가지는 저가 느끼기에 긍정보다는 부정이 많고 이 부정적인 것이 부치들의 부치성과 다르고 앞으로도 꼭 달랐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어서 제가 이 언어를 그렇게 절대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수키)

그래서 수키는 의도적으로 ‘부치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수키에게 부치란 해로운 남성성이 제거된 남성성을 표현하는 존재이

기 때문이다. 이렇듯 부치들이 남성성을 대하는 감각은 저마다 다르며, 공통적으로는 그것이 시스젠더 이성애자 남성을 패러디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판타지적인 남성성, 퀴어한 남성성, 남자 없는 남성성, 해로운 남성성이 제거된 남성성 등 부치는 저마다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표현하고 있었다.

제 2 절 부치 수행

1. 부치들의 ‘애티튜드’

그렇다면 오늘날 남성적인 외모가 부치를 가장 잘 설명하는 특징이 아니라고 할 때, 부치의 정체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그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그것을 부치 특유의 ‘애티튜드(attitude)’라고 말한다. 애티튜드를 한국말로 하면 ‘태도’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태도는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가짐, 또는 그 마음가짐이 드러난 자세’이다. 하지만 레즈비언 커뮤니티에서 통용되는 ‘애티튜드’라는 단어는 단순히 여성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나 자세를 넘어 다른 여성을 대할 때의 수행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맥락이 있다. 스스로 부치라고 명명하는 연구 참여자 스콘은 자신이 타인을 부치라고 인지하는 방법이 이러한 애티튜드를 감지하는 것이며, 이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치의 속성이라고 말한다.

저는 부치는 진짜로 태어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후천적 부치가 되는 거는 그 사람은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 애티튜드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긴머부 분, 언니셨는데 그분을 만났을 때 느낀 거는 이 사람은 이길 수 없다. (스콘)

스콘은 긴머부와 교제를 할 때 비록 자신이 더 남성적인 외모를 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상대적으로 더 ‘부치스럽다’라고 느꼈는데, 이는 바로

부치의 애티튜드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애티튜드는 과연 구체적으로 어떠한 태도와 수행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스스로 긴머부라고 정체화하는 연구 참여자 이서는 자신이 머리가 길고 사회에서 얘기하는 ‘여성스러운’ 외모를 가졌지만 자신을 부치로 정체화하는데 그 이유도 바로 이 특정한 ‘애티튜드’ 때문이라고 말한다.

저는 몰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친구들은 뭔가 너 되게 밖에 나가면 여자들한테 너무 친절해. 너 여자들한테 너무 잘 해줘. 여자를 너무 사랑해라고 얘기해, 하면서 또 그게 진짜 부치 같애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요. 여성분이 갑자기 춤을 추다가 넘어지려고 하면 허리를 붙잡고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옆에 있었을 때 뭐 옷가지가 있으면 제가 정리한다거나 저는 그게 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해서 손에 땀 매너 같은 거였는데 그게 되게 부치 같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이서)

이서는 자신의 부치스러운 애티튜드란 상대 여성을 배려하는 애티튜드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는 의식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태도이다. 또 다른 연구 참여자 숙자 역시 부치의 애티튜드란 ‘챙겨주는 것’ 이지만 동시에 ‘그냥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근데 긴머리여도 부치일 수 있잖아요. 긴머부가 있잖아요. 아 그게 있어요. 아 뭔가 그런 좀 털털하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막 애써서 막 챙겨주고 그게 아니고 그냥 하는 건데 근데 챙겨주는 그거가 그런 것들이 부치가 아닌가요? (숙자)

이에 따르면 부치를 ‘부치답게’ 만드는 것은 그의 애티튜드인데 이때 애티튜드란 여성을 상대하는 특정한 마음가짐과 행동양식이다. 스콘은 자신의 부치니스를 설명하며 ‘다른 여자는 나보다 약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굿은 일을 하는 게 맞다’라는 마음가짐을 항상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인해 자신이 남성적인 일이라고 일컬어지는 신체

적인 일을 도맡아 하는 행동양식이 나타난다고 말한다.

뭔가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기본적으로, 진짜 이게 이상하게 저도 어쨌든 똑같이 여자고. 그런 여자로서의 삶을 살아왔고 저도 매달 정혈도 하고 하지만 뭔가 항상 다른 여자는 나보다 약한 약할 것이라든가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마인드가 뭔가 무거운 게 있으면 들어주는 게 약간 멋있는 척 하려고가 아니라 재는 나보다 당연히 약하니까 라는 힘이 세고 뭔가 체력도 크고 튼튼하니까 내가 드는 게 맞는 거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 뭐 무슨 어 공구를 조립한다든가 망치질 한다든가 흔히 남성적인 행동으로 일컬어지는 게 그게 내가 남성적이고 그게 남성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애가 하는 것보다 약간 내가 하는 게 낫다 다칠 수 있는 어떤 좀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행동은 내가 하는 게 낫다 다쳐도 내가 다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에서 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동이나 매너 같은 거는 그런 거에서 비롯된 것 같고 (스콘)

스콘은 자신의 이러한 애티튜드가 자신의 부치 정체성을 설명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레즈비언사회의 구성원들도 인물의 외양보다는 특정한 태도를 보고 그를 부치라고 추정하거나 호명하는데, 이때 부치스럽다고 여겨지는 애티튜드는 ‘여성을 위하고 배려하는 매너를 갖춘 태도’라고 압축하여 설명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 스콘은 이러한 애티튜드의 개념의 범주를 좀 더 확장시켜, 부치란 배려하는 것을 넘어서 여성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레즈비언’이라고 말한다. 일례로 임신이라는 재생산 행위는 자궁을 소지한 여성만이 할 수 있으며 시스젠더 남성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부치가 남성적인 특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임신과 분리될 이유는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만약에 레즈비언 사이에서 아이가 생길 수 있다면 임신을 누가 해야 되느냐라는 그 이슈가 있는데 저는 부치가 해야 된다고 사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것도 되게 임신은 신체 변화가 굉장히 크고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건 부치가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될 수 있다면 저도 제가 할 생각인데. 근데 이걸 또 가장 극강의 여성스러운 행동인 거잖아요. (스콘)

따라서 부치가 매너 있게 행동하고 여성을 배려하는 이유는 이성애자 남자를 꽤러디하기 때문이 아니라 부치를 설명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여성을 위하고 배려하는 ‘애티튜드’이기 때문이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또는 뭐 사랑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세상에 있는 많은 여성분들을 위해 내가 뭔가를 스스로없이 하고 좀 보호해 주고 싶어 하고. 근데 그게 약간 또 모성애랑은 좀 다른 거죠. 좀 이렇게 약간 멋있게 보이면서 내 여자를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레즈비언을 부치라고 생각합니다. (스콘)

물론 부치가 여성을 위한다고 해서 여성을 돌봄의 대상으로 본다는 의미는 아니다. 스콘도 이같은 태도는 ‘모성애와는 다르다’ 라고 말한다. 또한 부치가 여성을 성적으로 욕망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물론 이는 이성애자 남성과는 다르다. 연구 참여자 지안은 부치가 여성을 성적으로 욕망한다는 점에서 시스젠더 이성애자 남성과 공통점이 있긴 하지만, 분명히 부치와 이성애자 남성은 여성을 어떻게 위하는가라는 관점에서 다르다고 말한다.

나는 일단 부치들은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성관계를 할 때) 일단 내가 너 먼저 보내줄게. 신경 쓰지 마. 나는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내가 너 먼저 보내줄게. 근데 남자들은 그게 아니잖아 일단 나 먼저 가고. 거기에서 되게 좀 편안하고 안정적인 느낌은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지안, 보조 사례)

지안은 부치는 여성을 욕망하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자신보다 상대 여성을 먼저 놓음으로써 여성을 도구로써만 보지 않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동시에 여성을 ‘인간’이 아니라 ‘여자’라는 성적인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일부 시스젠더 이성애자 남성과 자신을 구분 지으며 ‘배려하는’ 부치만의 애티튜드를 완성시킨다.

2. ‘주는 존재’인 부치

이러한 배려의 애티튜드는 두 번째 이어지는 부치의 특징인 ‘주는 존재’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레즈비언 하위문화에는 ‘깁’, ‘텍’, ‘깁애텍’이라는 은어가 존재한다. 이는 각각 영어단어인 give(주다), take(받다), give and take(주고 받다)를 한국식으로 발음하기 편리하게 변형시킨 용어이다. 이때 각각의 단어들은 보통 동사가 아닌 명사로서 사용된다. 깁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 혹은 ‘주는 행위’라는 명사의 뜻을 가지는데 이 은어는 성관계에서 삽입하는 위치에 있는 자, 혹은 삽입하는 행위 자체를 말한다. 반대로 텍은 ‘받는 사람’ 혹은 ‘받는 행위’라는 명사로 사용되며 삽입을 받는 위치에 있는 자, 혹은 삽입을 받는 행위 자체를 나타낸다. 그리고 깁애텍은 말 그대로 삽입을 주고, 받음을 동시에 하는 것을 선호하는 자를 뜻한다. 여성 간의 성행위에서 보통 삽입을 하는 위치에 있는 자는 성기의 직접적인 자극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삽입을 받는 자가 더 큰 성적 쾌락을 얻는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즐거움을 주다’라는 뜻을 내포하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그 정도는 다르지만, 부치와 이러한 ‘깁’의 속성에는 분명한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아무튼 부치라고 함은 이런 거죠. 이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만족시켜주는 것에서 기쁨을 얻는 뭔가 이게 가장 큰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온텍 부치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것에 따르면 형용모순 아닌가. 온텍 부치? 그런 거 있을 수 없어.
(개비)

개비가 말한 ‘온텍’이란 온리 테이크(only take)라는 의미로, 오로지 삽입 받는 것만을 선호하는 자이다. 개비는 부치가 상대 여성을 배려하고, 만족한 상대방의 모습을 보며 기쁨을 얻는 존재인데, 깁도 일종의 만족감과 즐거움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부치 정체성과 높은 관련성이 있다

고 이야기한다. 부치의 정체성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주는 것이며, ‘주는 자로서의 부치’ 규범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부치니스하고 섹스 포지션에서 주는 역할하고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 연구자)

아주 많이. 그래서 실제로 웹분들이 이렇게 부치들을 볼 때 그런 거를 원하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기대하지 않을까요. (지안, 보조사례)

지안 역시 ‘깍’과 부치의 특성은 아주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오히려 ‘웹 분들’이라고 대표되는 부치를 욕망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이미 기대하고 당연시하고 있기 때문에 부치에게 끌리는 것일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성향은 이미 규범적으로 전제되어있고, 설령 잠자리에서 깍을 하지 않는 부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여겨진다.

연구 참여자 수키는 부치로 호명되기에 자신을 느슨한 부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 외에 자신을 부치 범주에 포함시키는 이유 중 하나는 깍을 조금 더 선호하는 특성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어떤 부분에서 내가 웹보다는 부치에 가깝구나라고 느끼는지?- 연구자)

깍엔택으로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웹은 당연히 텍을 좋아하잖아요. 부치는 깍을 좋아하고 물론 깍엔택을 모두 한다 해도 어떤 것이든 깍이 더 좋은 사람들.

(수키)

수키 또한 부치를 ‘어떤 것이든’ 깍이 더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며, ‘주다’라는 깍이라는 뜻의 용어를 잠자리에서 차지하는 위치뿐만이 아니라 ‘그 어떠한 형태’로 확장 시킨다.

한편 엄격한 규범을 내재화한 개비와는 조금 다르게, 연구 참여자 인성은 부치, 웹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깍, 텍이라는 용어와 동의어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인성에게 부치와 웹은 젠더를 수행하는 위치에 관한 용

어이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성관계에서의 접하는 위치와 일치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부치-핼 관계가 남성-여성, 삽입-흡입의 도식과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은 부치와 핼에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치와 핼은 약간 훨씬 더 젠더 수행에 가깝고 그러니까 섹스 포지션은 훨씬 더 다른. 섹스에서 어떤 포지션을 하나하는 게 꼭 어떤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을 담보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핼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내가 텍을 한다 그러면 부치로서 이래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보다 더 부치 사람을 만나면 내가 텍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느끼고 그런 건 있어요. 어느 정도의 연관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성)

연구 참여자들은 반드시 부치와 핼이 하나의 쌍을 이루고 핼과 텍이 하나의 쌍을 이루며 이 둘은 대립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양한 레즈비언들과 교류하며 이미 너무도 많은 규범 위반과 그것의 반복을 목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정된 규범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과 위반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규범임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기대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이들은 위반의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지만, 동시에 기대되는 부치의 특성으로 ‘주고 싶어 하는 행위’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한편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깁’이라는 은어가 가지는 ‘성관계에서의 삽입하는 위치’라고 좁은 의미만으로는 해석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다’라는 단어의 본래 뜻으로 회귀시켜 ‘주는 행위 전반’을 지칭하는 뜻으로 넓게 사용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삽입을 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제공하는 행위 전반을 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 강은 타인의 기대에 따라 부치의 정체성을 수행하는 사람이며, 스스로 부치라고 정체화하기보다는 주로 부치라고 호명된다. 그 이유 중 하나로 강은 자신이 ‘깁’을 하는 위치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깁은 성관계에서의 삽입하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삶의 전반에서

무언가를 제공해주고 상대방을 위하는, 말 그대로 무언가 선뜻 ‘주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용어이다.

근데 여자친구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는 깎 잘 주잖아. 전반적인. 그러니까 섹스 포지션이 아니라 그냥 살면서 기본적으로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해주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을 해 주고. (강)

강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자신을 부치로 호명하는 이유가 ‘깎을 잘 주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깎’이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이며 ‘주다’라는 표현이 중복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깎이라는 단어에는 부치의 배려와 매너 등의 ‘주는’ 특성이 응축되어 하나의 명사로 나타난 것이다. 수키는 넓은 의미로 쓰이는 깎의 용례로 ‘생각깎’이라는 표현을 소개한다. 생각깎이란 어느 한쪽이 깊이 있는 사고를 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다른 한쪽이 일목요연하게 논리를 정리하여 전달해 줌으로써 깊이 있는 사고를 돕는 행위이다. 이렇듯 부치들의 ‘준다’라는 특성은 그 의미가 확장되거나 변형되며 부치들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3. ‘왕부치’에서 ‘한남부치’로

하지만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좋은’ 부치로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니다. ‘주는 성질’과 ‘일정한 스타일’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도 기피의 대상이 되며 부치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돌출된 존재가 되는 부치들이 있다. 이러한 부치들은 바로 ‘한남 부치’(한국남자 부치) 혹은 ‘가부장 부치’(가부장제 안에서의 가부장 남성처럼 행동하는 부치)라는 낙인이 찍힌다.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은 마치 자신이 시스젠더 이성애자 남성이 된 것처럼 행동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은 시스젠더 이성애자 남성의 성차별적이고 반페미니즘적인 성향을 닮아 있고, 그들과 비슷한 행동을 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인식된다.

한국사회에서의 헤게모니 남성성은 병역의무를 한 이성애 남성으로서

경제력을 갖춘 생계부양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김엘리, 2014; 49). 가장 으로서의 생계부양자(경제)와 군인으로서의 국가안보주체자(군사)가 결합된 썩썩한 군사적 남성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김엘리, 2020) 이렇게 가부장의 위치에 놓여 있으면서 여성혐오적 태도를 보이는 남성들을 ‘메갈리아’ 이후 미러링 전략을 통해 ‘한남’이라고 부르게 되면서 헤게모니 남성성의 특징을 설명하기 용이해졌다. ‘한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전에는 이러한 특징을 가진 부치들을 ‘왕부치’라고 호칭하였다. 왕부치는 ‘강부치 = stone butch = 왕부치: 집에 도착했을 때 된장찌개 끓여놓고 기다리는 여자가 이상형인 부치’로 정의된다(레인보우 링, 5호, 2011). 그러나 ‘한남’이라는 단어가 널리 사용되고 난 이후에 이들의 특징을 헤게모니 남성성에 부정적으로 빗대어 ‘한남 부치’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들은 여성을 위하는 듯 행동하지만 사실은 여성승배에서 기인하였다거나, 성녀/창녀 이분법에 기인하여 여성들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가졌다거나, 여성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태도 등을 지닌다. 이러한 태도는 레즈비언 문화에서 강한 비판을 받는데, 특히 수키는 부치라는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이러한 한남 부치와 가부장 부치는 경계되고 지양되어야 할 존재라고 강하게 피력한다.

제가 그 남성성을 싫어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남자들중에 남성성이라는 변명으로서 행해지는 범죄까지 안 가도 굉장한 불편함이 있어요. 남성성을 특권화하고 디폴트화 하고 그 남성 집단 안에서 사용하고 남용하고 남성성 남용. 그리고 남성성이 저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왜 다르다고 생각하냐면 부치성은, 저는 레즈비언이 남성을 답습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게 만약 그렇게 그게 사실일 수 있어도 그게 그 지향점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가부장 부치 같은 그런 한남 부치 같은 쪽으로 절대 가면 안 되고 저는 그리고 그런 저는 당연히 남자랑 진짜 한남 부치와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만나봤을 때 사람을 둘 다 만나본 사람으로서 진짜 달라요. (수키)

수키는 남자의 남성성과 부치의 남성성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수

키는 남성성 자체를 해로운 성질로 보지는 않지만, 부치란 ‘해로운 남성성’이 제거된 존재여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해로운 남성성이란 여성을 과도하게 성적 대상화 하거나 소유물로 여기는 남성 호모소셜의 특징을 이야기한다. 부치는 남자가 배제된 여성의 남성성을 가진 존재여야 하며, 성차별적인 언행을 일삼는 행위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연구 참여자 망고는 가부장 부치와 교체한 지인의 사례를 소개하였는데, 사례 속에 등장하는 가부장 부치는 상대방이 좋아하지도 않는 캐릭터의 목걸이 지갑을 선물해주며, 그 지갑을 하루도 빠짐없이 착용하고 심지어 잘 때도 착용할 것을 주문하였다고 한다.

제 친구는 가부장 부치에 대한 패티시가 있어서 가부장 부치만 만났었는데. 아 근데 그 친구 탈반했어요. 너무 가부장 부치만 만나다 보니까. 아무튼 그 친구가 맨날 그 스티치 그 캐릭터 스티치 있잖아요. 이상하게 생긴. 개 지갑을 맨날 걸고 다녔었는데 목걸이 지갑을. 그래서 친구들은 이제 개가 스티치를 되게 좋아하는 줄 안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스티치 선물만 줬어요. 근데 개가 사실대로 이실직고하더라고요 저한테. 사실 스티치를 전혀 안 좋아하고 무슨 캐릭터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근데 왜 메고 다녔어 이랬더니 자기 여친이랑 장거리 연애 중인데 가부장 부치여가지고 자기가 사 준 지갑이니까 절대 너는 이거 자면서도 하고 자야 돼. 너 이 목걸이지갑 절대 풀면 안돼 라고 해서 그 친구가 맨날 이제 매일매일 셀카를 보내줬대요. 근데 매일매일 셀카를 보내줄 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고 다녔던 거예요. (망고)

망고는 자신을 포함한 지인들 모두가 이 사연을 듣고 아연실색하는 동시에 사연 속의 가부장 부치를 비판하였다고 이야기한다. 이 이야기 속의 가부장 부치의 행동은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하고 상대방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때 심리적 압박을 한다는 측면에서 스트라우스(Straus, 2017)가 분류한 데이트 폭력의 유형 중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비난하는 등의 언어적 공격과 대화를 무시하는 등의 비언어적 공격인 심리적 폭력(psychological violence)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 비록 스트라우스의 연구는 이성 간의 데이트 폭력에 관한 자료를 기반으로 전제되었지만,

데이트 폭력이 반드시 특정 성별 간에서만 발생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데이트 폭력이 ‘연인 간의 교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하예지, 서미경, 2014)으로 정의되는 만큼, 레즈비언 연인관계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다. 현재 한국 레즈비언사회 내에서는 이러한 수평적이지 못한 관계를 비판하기 위해 한남 혹은 가부장 이라는 부정적인 의미의 수식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불평등을 초래하는 행위를 가부장제 속 남성의 성차별적인 행위에 비유하며 이를 경계하려는 시도로 읽을 수 있다.

다른 연구 참여자 이서 또한 자신이 전해 들은 한 ‘한남 가부장 부치’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이를 비판한다.

자기 아는 부치 중에 진짜 미친 한남 가부장 부치가 있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부치인데라고 얘기했더니 다 같이 커플 모임을 했는데 30살짜리 여자인데 20살짜리를 만난대요 근데 동거를 한대요 근데 저희가 아는 언니들도 동거를 했었어요. 너네 만날 때 너네 동거 했을 때 누가 밥하고 누가 집안일 했어 이라고 물어봤대요 부치가. (가명)언니가 다 했지 나는 그런 거 안 해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어디 부치가 주방에 들어가냐고 진짜 이 말 했대요 어딜 부치가 주방에 들어가 부치는 주방에 들어가면 안 돼. 우리는 내 얘기가 다 해줘 이랬대요. (이서)

이서는 부정적 낙인을 강조하기 위해 한남과 가부장을 합쳐 의도적으로 ‘한남 가부장 부치’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는데, 이서의 일화에 등장하는 한남 가부장 부치는 자신을 남성 가부장의 위치에 놓고 상대 여성을 자신에게 종속된 소유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둘의 관계는 레즈비언 연인 사이의 관계이며 한남 가부장 부치는 실제로 남성 가부장의 위치를 획득하지 못했다. 이러한 두 지점에서 한남 가부장 부치는 부적절한 패러디를 수행하는 동시에 이 패러디가 철저히 실패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한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레즈비언 사회 내에서 분명히 비판을 받는 행동 양식들이 존재하며, 한 개인이 부치의 수행적인 특징들과 스타일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부치로서 온전히 인정받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

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 스콘은 한남 부치라는 용어가 생겼다는 사실 자체가 부치와 한남 부치는 분리되는 존재라는 생각을 뒷받침하는 현상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저는 되게 긍정적인, 한남 부치는 있지만 한남 부치라는 말이 생겼다는 게 원래 부치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개네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 소수의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치라는 존재와 개념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스콘)

스콘은 부치와 한남 부치, 가부장 부치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오히려 한남 부치라는 단어가 생겨난 것은 그것을 분리하여 경계하기 위한 자정적인 현상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부치 정체성의 재현과 인식에 대한 논의들 속에는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지 않더라도 남성성의 부정적인 차원에 대해서 경계하고 이를 가려내는 시도들이 녹아 있었다.

제 4 장 부치 담론의 확장

제 1 절 부치의 기능

1. 인식틀과 삶의 양식을 제공하는 부치

부치라는 용어가 왜 필요하며, 부치가 한국 레즈비언 문화에 무엇을 제공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연구 참여자 서아는 부치라는 정체성이 ‘연속적으로 사회와 개인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한다.

자기의 정체성은 인식을 안 한 채로 인식을 안 한다는 서로 무의식 자아를 가진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관계를 형성한다고 하는 건데 그럼 그 관계는 매우 고유하면서 그 사람들이 만든 게임 같은 거잖아요. 그 사람들만 사용하는 두 명의 언어 고립어 같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고 정체성이 어쨌든 연속적으로 그리고 사회랑 연결된 측면에서 그거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이런 우리가 보기에 구닥다리들이지만 이런 용어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아)

서아는 부치와 같은 정체성이 낡았다는 비판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비판은 다른 종류의 비판이라고 지적하며 부치라는 정체성이 ‘구닥다리’이지만 개인과 사회를 연결해주어 개인이 인식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부치라는 정체성은 ‘구닥다리’일지라도 여전히 개인이 인식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인식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서아에 따르면 오로지 ‘나다움’, 즉 행위성을 가진 주체에 의거하여 자신을 설명하려는 방식은 불가능한 동시에 고립을 낳는다.

그러니까 개인 이게 되게 어떤 내밀한 섹슈얼리티가 되게 내밀한 측면이 있지만 이게 완전히 개인적인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사회 구조적

으로 인해서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답게 뭔가 이렇게 키워진 것도 아니야 사실 우리 되게 신세대라서. 그런 거를 타파하려는 사람들이 부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엄청나게 이렇게 이분법화된 사회, 맞는데 이분법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옛날에도부터 계속 있었다고. 근데 그런 측면은 소거된 채 마치 자기 홀로 이 세상에 떨어진 이분법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는 아무런 소속도 언어도 없는 고독하고 고립된 나라는 의식. 되게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서아)

망고 역시 동성애자라는 정체성의 가시화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동성애자 안의 다양성을 표현하는 용어가 없다면 자신과 같은 사람들은 호명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고 인식틀을 모두 해체하려는 시도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좀 호시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국드라마에 동성애자가 많이 나온 적이 없었고. 근데 그거, 그냥 지금만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사실 그 전에 부치라는 단어가 없었으면 부치나 바지씨라는 단어가 없었으면 어떻게 호명됐을 거냐는 거죠.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럼 그냥 계속 그렇게 이름 없이 살았어야만 했나? 그렇게 해서 내려온 이름인데. 그 이름을 이제 와서 솔직히 말하면 선배들이 일구어 놓은 터전에 와서 그건 후졌으니까 이제 너네 후지고 구리니까 나가라. 다 그냥 해체하겠다. 우리가 진짜 진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좀...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하지만 싸가지가 없다. (웃음) (망고)

스콘은 한 번에 성별이 읽히지 않는 외모 때문에 남성으로 패싱이 되거나, 혹은 레즈비언 문화를 모르는 이성애자 여성들 사이에서 ‘유사 남자’로 대해지는 일을 겪는다. ‘어딘가 흠결이 있는 남성’으로 인식되는 것에 스콘은 불편함을 느낀다. 그래서 스콘에게 레즈비언 문화가 편하고 즐거운 이유 중 하나는, 이러한 자신이 흠결이 있는 존재가 아닌, 부치라는 범주 안에서 인식되고 인정받는 경험을 하기 때문이다.

제가 회사 회식이 있었어서 바에 갔었는데 여자 화장실이 여기 끝에 남자 화장실이 여기 끝에 있었는데 화장실 한 칸이라서 누가 사람이 있어서 제가 그 앞에

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직원이 화장실 찾으세요. 이래서 네 이랬더니 남자 화장실로 이렇게 데려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닌 척하기 뭐 해서 그냥 기다리는 척하다가 그냥 다시 들어오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뭔가 또 이제 공중 화장실에 갈 때나 이럴 때 되게 그런 걸모습으로 패싱을 당하는 경험이지. 그래서 이런 어떤 남성성,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여성이고 제 생각도 여성이고 나는 여성이지만 바깥에서 자꾸 나를 남자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가끔 또 헤테로 여자분들도 너무 멋있다. 이렇게 막 그거 있어요. 유명한 말. 뭐 네가 남자였으면 사귀었을 텐데 이야기 때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류의 저를 되게 어떤 유사 남자로 보는 그런 시선 같은 게 좀 불편하긴 하죠. 근데 오히려 레즈비언 쪽에 있으면 그들은 당연히 나를 티 나는 부치 티부라고 그냥 생각을 당연히 해주니까 오히려 그건 또 되게 편한 부분인 거예요. (스콘)

푸코는 동성애자가 된다는 것은 동성애자의 삶의 방식을 정의하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한다(Foucault, 1997). 이와 마찬가지로 부치가 되는 것도 부치의 삶의 양식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도 한다. 이러한 삶의 양식은 여러가지 실험과 시도를 통해 구성되기도 하며, 역사적인 부치의 삶의 양식과 공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부치의 삶의 양식은 성소수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여정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그래서 용어라는 게 많이 생길수록 혹은 용어라는 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들 다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은 용어가 존재하더라도 그 용어가 나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다고 신조어를 만든다 해도 신조어에 해당되는 사람은 실제로 적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경향들이 자신이 레즈비언이다라는 정체성의 내적 고민의 시간을 감소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나는 부치야 하면서 이렇게 부치 노릇을 좀 해봐 그리고 아 부치 아니었네 그리고 갈아타. 그랬을 때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용어에 기대거나 빌려서 자신을 표현했다가 뭐 이걸 맞았고 이걸 아니었고 내가 헛짓거리 혹은 아 나 부치였구나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과정들이 너무 이제 희미해진 거죠. 다들 맨 땅에서 시작하는 느낌. 맨 땅에서 자기는 레즈비언이야라고 이제 시작을 했어 근데 나 부치도 펌도 내가 설명할 수 없고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을 기대해서 자기를 표현하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서아)

서아는 청소년기가 아닌, 어느 정도 자신을 파악했다고 여겨지는 성인기에 성소수자로 정체화를 한 자신의 친구들을 소개하며,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비교적 늦게 깨닫게 됐을 때 부치라는 정체성이 삶의 양식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것에 기대어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부치’라는 정체성에 기대어 자신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지, 어떤 행동 양식이 편한지에 대해 다른 레즈비언 사회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부치는 고정되지 않은 정체성이기에 부치라는 설명이 모두에게 들어맞을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끊임없는 협상이 일어나며 끊임없이 변주되는 범주인 것이다.

인성은 자신을 부치로 정체화하기 전에는 ‘여성은 여성복을 입어야 한다’는 사회 규범을 끊임없이 의식하였지만, 부치로 호명되고 나서는 오히려 그 규범을 무시하고 ‘멋있는 부치’가 되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양식을 만들어나갈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대학에 와서는 사회로 와서는 적당히 보이쉬 하고 굉장히 털털하지만 어쨌든 여자애로서 약간 칼 단발이 좀 단정한. 이렇게 좀 단발 이런 거였지만, 근데 언니는 누가 봐도 부치야. 그래 보여 이렇게 하는 순간 어 진짜? 어 그래? 하면서 약간 그러면서 이제 나를 레즈비언이라고 설명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게 그게 설득력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고 완전 부치에 그럼 나 부치처럼 보이면 되게 딱 되겠네. 머리도 약간 층 내는 커트 머리 하고 부치의 어떤 제스처 있잖아요. 이런 거 하는 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아지고 되게 낮부끄럽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런 거 나 고등학교 때는 하던 짓이잖아요.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부치면 그럴 수 있지 난 부치잖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인성)

인성은 부치의 삶의 양식을 받아들이고 부치가 되어 가면서 자신감도 생겼으며 오히려 레즈비언인 자신의 삶 또한 더 잘 설명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부치라는 용어가 여전히 레즈비언 하위문화에서 소속감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이고, 공동체 안에서 개인에게 유용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니까 (한국은) 젠더 규범이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남자다운 것과 여자다운 것 특히 여자에게 강요되는 어떤 이성의 규범과 젠더 규범 젠더 룰 같은 게. 근데 거기에서 나는 부치야 나는 펌이야라고 설명함으로써 어떤 그것과도 거리를 두고 어떤 레즈비언 문화라는 것을 만들고 꼭 그게 레즈비언이라기보다 어쨌든 그런 이성애적이지 않은 어떤 욕망들 수행들 어떤 포괄하면서 그걸 또 유머잖아요. 일종의 부치 놀리기 이런 걸 하면서 어떤 소속감을 만들고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고 우리만의 유머와 어떤 그런 것들을 코드들을 만들어 나가고 하면서 저는 그게 되게 좋고 스스로도 좋고 편안함을 느끼고 즐겁고 그리고 또 필요하다고도 생각해요. (인성)

인성은 또한 거꾸로 부치라는 삶의 양식이 레즈비언의 하위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한다고 이야기한다. 부치라는 범주와 레즈비언 하위문화는 서로 상호작용 하는 관계에 놓여있는 것이다. 비단 삶의 양식 뿐만 아니라 스콘은 레즈비언 커뮤니티 내에서 일정한 코드와 하위문화를 공유하는 것에 즐거움과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부치와 같은 정체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또 약간 뭐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튀는 걸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자로 길러진 인간이 있고 이렇게 머리가 길었는데 그러면 이 상태로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굳이 머리를 잘라서 좀 티를 내고 레즈비언인 척을, 그런 걸 이렇게 티를 내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도 좀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지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만나오면서 근데 어쨌든 이거는 나의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것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부치들은 아주 뭐랄까 사회에 순응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 티를 안 내고 살 수도 있지만 굳이 머리를 자르고 남자 옷을 주워 입고 여자를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는 되게 멋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콘)

스콘은 부치로 살아가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사회에 섞이기 위해 규범을 내재화하고 규범적 실천만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티가 나는’ 부치의 삶을 사는 것은 저항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스콘에게 부치라는 정체성은 일종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의 효과를 가지고 있기도 한 것이다. 이렇듯 부치는 레즈비언들에게 부치의 삶의 양식을 제안하고, 개인 주체의 고양감과 유대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나아가 하위문화를 생성하며 이성애규범적인 사회에 균열을 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2. 부치 실천의 분류

그렇다면 현대 한국 레즈비언 사회에서 부치는 무엇을 실천하고 어떻게 해석되고 있을까? 본 연구에서는 부치가 해석되는 방식을 실천을 통해 크게 호명과 명명 그리고 반응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은 끊임없는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먼저 연구 참여자 수키는 호명을 통해 자신을 부치라고 해석한다. 수키는 부치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자신이 레즈비언 커뮤니티 내에서 항상 부치로 호명되기에 자신이 부치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느낀다.

제 애인도 그렇고 제 아는 동생, 친구, 언니들도 저를 다 부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화한테 물어봐야 되나 나 왜 부치야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안 보이는데 그들이 보는 부치 같은 부치 스테레오 타입에 내가 분명히 부합하는 거죠. 에티튜드든. 외모든. (수키)

수키는 ‘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정의할 수는 없고, 자신이 부치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찾지는 못했지만, 부치로 호명되고 있고 이 호명이 어느 정도 자신을 잘 설명한다고 여긴다. 수키는 부치는 수행적인 측면이 강한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수행을 통해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치로 인정을 받고 호명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원래 정체성은 자신이 정체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부치는 그거 만큼은 아니어도 그 호명이 진짜 중요해요. 부치의 그 정신을 위해서. 부치는 호명되지 않는 부

치는 힘들다 스스로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고. (수키)

수키는 호명되지 않고 스스로 부치라고 선언할 경우 타인과의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인식의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무엇보다 호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한다. 수키는 자신과 타인 사이에서 부치 정체성에 대한 협상을 통해 부치로 호명되고 있다.

다른 연구 참여자 강의 경우는 젠더퀴어로 정체화를 하였지만, 레즈비언 사회에서는 부치로 패싱되며 호명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패싱이 굉장히 애매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자로서 여자가 볼 때 뭔가 부치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인데 뭔가 좀 애매한데 여잔지 남잔지. 그렇지만 여자 같다. 그리고 또, 남자야. 근데 좀 중성적이네. 혹은 남자한테 게이같다 라고 보일 때도 있어요. 굉장히 이제 많죠. 근데 이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그거를 싫어하지만 않는다면 거기에 맞춰줘야 돼요. 그게 안전하게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남자로 보이는 부치면 남성의 어떤 수행을 하고자 하는 거를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이미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흉내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여자라고 소개를 받고 레즈비언 모임에 갔어. 근데 누가 봐도 저는 부치나 재 뭔가 되게 남성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구성원마다 또 다른데 제가 너무 남성적인 것 같다 그러면은 여성적이고자 노력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막 다들 괜찮아 해 그럼 저는 그냥 그대로 원래 하던 대로해요. 부치처럼. 그런 거죠. (강)

강은 스스로를 설명하기에 완벽하게 적합한 용어는 없지만 그나마 젠더퀴어라는 용어가 가장 적절할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강은 정체성을 만드는 과정은 결국 기대된 규범에 기대어 자신을 설명하는 과정이라기 보다는 ‘나다움’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하여 강은 ‘나다움’ 수행을 하고자 노력하였는데, 이때 타인들에게 부치라고 호명이 된 것이다. 이를 주디스 버틀러의 수행성 이론으로 살펴보자면, 젠더는 단순한 사실 혹은 몸의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규제적 규범이 섹스를 물질화하고 이러한 물질화가 규범의 강제된 반복을 통해 이루어지

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복이 필요하다는 것은 물질화가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의미이며, 몸은 물질화가 추동되는 규정을 절대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Butler, 2011:5) 젠더는 결코 고정적인 정체성이거나 다양한 행동이 그것으로부터 진행되는 행위자의 장소가 아니라, 시간 안에서 점차적으로 구성된 정체성, 즉 행동의 양식화된 반복(a stylized repetition of acts)을 통해 도입된 정체성인 것이다(Butler, 1988: 519). 강 역시 부치라는 범주 안에서 젠더 퀴어로 정체화하며 균열의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었다.

제가 저는 제가 부치라고 얘기해 본 적은 없지만 지금 패싱이 돼 있고. 그리고 그러면 부치의 어떤 과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는 어쨌든 부치 정체가, 제가 자칭하지는 않아도. 근데 저의 부치도 남자를 따라 하지 않았어요. 애들도 남자를 따라하는 건 아니고. 부치들이 남자를 따라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모든 젠더를 따라 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자면 모든 젠더를 따라 하고 모든 젠더를 흉내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냥 저답게 할 때 부치라고 패싱을 받았죠. (강)

강은 스스로 부치라고 명명하지는 않지만 ‘나답게’ 행동했을 때 부치라고 호명되었으므로 부치의 범주에 자신이 느슨하게나마 포함된다고 느낀다. 사실 자신을 소개할 때 현존하는 용어 중 가장 편한 용어는 젠더퀴어지만, 타인과 소통할 때는 비교적 널리 알려진 부치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복잡다단한 정체성을 설명하기 용이한 점도 있다고 말한다. 한편 인성은 스스로 레즈비언으로 정체화 한 후 호명을 통해 부치로 다시 한번 정체화를 하는 경험을 하였는데, 자신이 처음 부치로 호명되었을 때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인성은 그 경험은 긍정적 깨달음의 경험이었다고 이야기한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4명 있잖아요. 프로젝트 같이 했다던. 그게 약간 술자리였어요. 뒤풀이 자리였는데 4명이 이렇게 있고. (중략) 이렇게 있으면서 나는

팸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뭔가 탑엘 이런 거 하면 뭔가 부치가 아닐 것 같아 왜냐 하면 나는 작고 말랐으니까 이렇게 하면 제 옆에서, 저도 어렸어요. 언니 언니 완전 부치인데 지금 언니 어딜 가도 봐봐 언니 그냥 완전 딱 부치지 그래서 언니 꾸부지. 이러니까 그래? 하고 있었는데 좋아하고 있네 지금? 입꼬리 완전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래? 그래서 입꼬리 완전 올라가고. 와 했던 게 막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러면서 맞네 부치네 약간 이랬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인성)

부치라고 호명된 후 인성은 자신의 삶을 되짚어 보며 그 속에서 자신의 부치니스를 발굴하는 작업을 하였다. 부치의 행동양식과 특질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아내는 것은 고양적인 일이었으며, 그 결과로 인성은 레즈비언 하위문화를 보다 편안하게 즐길 수 있었다. 부치라는 호명은 때로 긍정적인 즐거움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타인의 인정을 통해 자신을 다시 한 번 긍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서는 긴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지만, 부치의 애티튜드 라는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주변인으로부터 부치로 호명된다. 이서는 자신이 부치의 규범들을 엄격하게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를 부치로 명명하기 하지는 않지만, 역시 부치라는 타인의 호명을 긍정한다. 이서는 스스로를 긴머부라고 소개하는데, 긴머부를 ‘중성적이고 묘한’ 매력을 가진 레즈비언이라고 평가하며 긴머부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자기확신을 하기도 한다.

반면에 타인으로부터 호명되기보다 스스로를 부치로 명명하면서 자신을 부치로 해석한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연구 참여자 망고는 유년 시절을 톰보이로 살아왔고, 계속해서 여성에게 끌림을 느꼈지만 이러한 자신을 설명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부치라는 정체성을 발견한 후 편안함을 느꼈고, 지금은 스스로를 부치라고 소개하고 있다.

제가 그 뭔가 그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주디스 헬버스탐의 여성의 남성성을 읽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읽고 아 뭔가 스톤부치, 제가 스톤부치까지는 아니지만 스톤부치들의 어떤 행동양식이 어 그들이 바라는 어떤 게 그 전 세대 스톤부치들이

사실은 저랑 비슷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치라고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었어요. (망고)

망고는 스스로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찾기 위해 레즈비언 문화의 역사를 공부하였고, 자신과 가장 비슷한 사람은 부치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스스로를 부치라고 설명하고 명명하고 있다. 레즈비언 문화의 역사 속에서 자신과 비슷한 모습들을 찾아 그 이름으로 자신을 명명하면서 편안함과 소속감을 느낀 것이다.

지안은 자신을 부치 중에서도 ‘티부’(티나는 부치)라고 당당히 이야기한다. 지안은 부치로 사는 것은 ‘유리 벽장’ 안에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커밍아웃을 하지 않는 벽장 속의 부치라고 해도 외양과 행동에서 부치라는 것이 티가 나기 때문에 그 벽장은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로 만들어진 유리 벽장이라는 것이다.

저는 좀 뭐라 그럴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부치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티부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에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숨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티 나고 하는 건데 저는 그거 자체를 이렇게 숨기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전혀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데이팅 앱이나 약간 그런 어플이나 이런 데서 누가 어떤 만남이 있거나 그래도 그냥 저는 그냥 내놓고 티부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고. (지안)

지안의 경우에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동성에게 끌림을 느꼈으며 남성적인 행동이나 스타일을 하려고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항상 티가 났기에 튀는 존재였던 부치의 정체성을 받아들였다. 더 나아가 오히려 자신은 티가 난다는 사실을 긍정하며, 부치라는 용어 앞에 ‘티 나는’을 붙여 보다 엄격하고 전통적인 규범의 부치임을 드러내는 티부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그리하여 지안은 계속해서 자신을 ‘티부’라고 명명하며 부치 실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스콘과 리단, 개비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반응을 통해 자신을 부치라고 해석한다. 스콘의 경우 예전에는 교제할 상대방을

일정한 기준으로 고르기보다는 보다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도를 했었는데, 초반에는 주로 당시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널리 쓰이고 인기가 많던 용어, 이를테면 ‘키티훈부(키 크고 티나는 훈훈한 부치)’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몇 년 지나고 들어와 봤더니 이 사람들이 다 웹 부치 안 나누고 성향 다 무성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도 그렇게 해야죠. (스콘)

스콘은 한 때 자신을 무성향이라고 소개하고 부치 성향을 가진 레즈비언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때 자신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부치니스를 해석하였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때 좀 깨달은 게 나는 어떤 그런 부치 성향이 너무 강력한 사람이랑은 이제는 못 만나겠다. 제가 그 언니를 만났을 때는 좀 어렸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하자는 대로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저는 제가 저의 부치니스를 마주했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부치라고 말하는 것에 자랑스럽고 제가 어떤 이 레즈비언으로 정체화를 한 것 안에서 또 한 번 부치로서 이제 확실히 그것을 자아 확립을 했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나는 웹 부치 나누는 사람이고 그리고 조금 그런 웹분들이랑 만나는 게 좀 마음이 편하고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스콘)

스콘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겪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반응을 통해 자신의 성향 또한 파악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쌓인 반응의 데이터를 토대로 자신의 부치니스를 해석하였다. 이 때 특히 유용했던 것은 부치-웹 관계에 대한 해석이었는데, 낯았다고 여겨지는 부치-웹 관계가 스콘에게는 분명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는 긍정적인 척도로 기능하기도 한 것이다.

서아 또한 부치의 정체성은 타인이 호명해주거나 스스로 명명하는 것이 아니라 연인과의 관계에서 조율되는 것이며, 부치는 관계 속의 상호

작용을 통해 해석되는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이제 동성애를 처음 하는 친구인데 제가 고도로 이렇게 진화를 시켜서 부치부치부치가 점점 되고 있는 거예요. (중략) 저는 왜냐하면 남들이 부치라고 하든 팬이라고 하든 그거는 남들이랑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랑 애인의 일대일 관계에서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아)

서아는 자신이 파트너와의 관계를 조율해나가면서 파트너가 상대적으로 부치가 되어갔다고 말한다. 부치니스란 누구에게나 발견될 수 있는 특질이고, 상호작용을 통해 이 성질이 발현되거나 억제되면서 상대적으로 조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비 또한 타인에 대한 자신의 반응으로 자신이 부치임을 확인하였다. 개비는 언젠가 술자리에서 부치인 상대방이 자신을 번쩍 안아 들었는데, 이 때 ‘받는 존재’가 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부치니스가 훼손되었다고 느꼈다. 배려하고 베푸는 태도는 부치의 특징인데, 개비의 경우 자신은 오히려 자신이 ‘주는 존재’이고 싶은 욕망이 크며 이러한 부치의 배움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나는 그 저 사람이 나한테 겁을 하는 게 저의 부치성이 훼손되는 경험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공주님 안기 할 때 정말 짜증이 났단 말이야 왜 나를? (다른 사람들도 지켜보고 있었는지?) 그럼 내 부치니스가 얼마나 훼손이 됐겠냐고 땅에 처박혔단 말이야 왜냐면 저는 그런 식으로 부치니스를 과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절대로. (중략) 딱히 경쟁 상대라고 생각되지 않는 부치들도 가끔 보면 같, 꿀 같지 않은 그런 게 있어요. 특히 이렇게 앞아가지고 말을 아주 재수 없게 하는 부치들을 보면 좀 짜증이 난달까 (개비)

개비는 부치인 상대방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베풀 때 즐거움을 느끼기 보다는 짜증과 수치심 등의 정동을 느꼈고, 이는 상대방이 개비 자신의 부치니스를 무시하고 훼손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반응들을 통해서 오히려 개비는 자신 또한 부치의 특질을 가지고 있는

부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듯 부치라는 존재와 그의 실천은 타인의 호명을 통해, 남성적인 레즈비언의 역사를 통해,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정동을 통해 해석되고 있다.

제 2 절 수행적 젠더로서의 부치

1. 생물학적 경계 넘기의 부치

한편 부치를 좁은 의미의 ‘남성적인 레즈비언’이라고 정의했을 때, 과연 실재하는 부치들이 이러한 좁은 의미에 모두 포괄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나아가 ‘레즈비언’이라는 용어를 떼어놓고 바라보았을 때, 연구 참여자들의 대부분이 자신을 레즈비언으로 정체화하지만,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이라는 좁은 의미로 이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 또한 가질 수 있다. 이에 마텔(2017)은 좀 더 폭 넓은 레즈비언의 정의를 제시한다. 레즈비언이란 흔히 다른 여성에게 끌리는 여성을 지칭하지만, 스스로가 여성(womanhood)과 관련되어 있다고 느끼며 여성에게 끌리는 논바이너리 혹은 젠더퀴어인 사람들 또한 이 용어로 정체화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를 통해 좁은 의미의 레즈비언은 실존하는 레즈비언들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확장되는 레즈비언의 범주와 같이, 견고해 보이는 규범에 균열이 일어나면서 부치라는 범주는 조금씩 느슨해지고 있다.

연구 참여자 강은 부치란 생물학적 여성 혹은 남성이라는 본질, 즉 섹스 위에 올려진 틀이 아니라 다양한 젠더를 포괄할 수 있는 수행적인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며 부치의 수행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여러 명의 부치들을 보면 누가 제일 부치냐라는 거는 약간 애매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가장 일을 잘하냐의 문제 같은 느낌인 거죠. 남들이 봤을 때는 재가 나 잘 사줘 재가 돈을 더 많이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다 부

치인 거죠. 저는 누가 부치나라는 질문에는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가 제일 그 핵에 있는 부치일까는 모르겠어요. 그걸 부치끼리도 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다만 그럴 수는 있죠. 여기 막 부치가 많아 한 10명의 부치들끼리 내가 있잖아 이렇게 해서 누가 가장 부치 다운가를 재미로는 뽑을 수 있을진 몰라요. 그게 정말 부치의 풀에 이게 그러면 a라는 애에 제일 가까울수록 부치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각자 위치가 있으니까. (강)

강은 ‘누가 부치냐’라는 질문은 곧 ‘누가 부치의 일을 잘 하느냐’의 질문과 같다고 이야기 한다. 부치들이 각각 위치 지어지는 지점은 다르지만 ‘부치의 일’이라는 수행적인 측면을 통해 부치 정체성으로 포괄된다는 것이다.

지금은 부치가 편한데요. 근데 열아홉살 때부터 스물 두 살 때까지는 저는 비수술 FTM이라고 말하고 다녔었어요. 사실 어 저는 남근에 대한 선망이 있고. 그리고 사실 어릴 때는 그게 되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남근에 대한 선망이.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프로이트를 좋아하셔서가지고. 프로이트 그 나오잖아요. 왜, 여자애들 어릴 때 거의 다 남근 선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 프로이트 이론대로 자라온 거라고 생각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게 한 번 고등학교 때 그 논술문제 같은 걸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여자애들이 막 경악을 하는 거예요. 무슨 누가 남근을 선망하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진짜 프로이트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근데 거기 공감할 한 사람이 저 밖에 없었던 거죠. 남근선망에. 그래서 아 나는 되게 남자 몸을 갖고 싶어 하는구나. 나는 수술해야 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중략) 그냥 어떤 부치로 살아가야겠다. 그러니까 누가 여자냐? 라고 물어보면 정확히 말을 못하겠지만 부치냐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말은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중략)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금은 누가 정체성을 물어보면 부치라고 해요. (망고)

망고는 톰보이 시절을 거쳐 프로이트의 남근선망이론에 동의하면서 자신이 남성의 몸을 원한다고 생각하여 이를 위해 트랜지션을 결심하였다. 그러나 건강상의 이유로 트랜지션을 위한 시술과 수술을 포기하게 된 망

고는 자신과 같이 스스로를 시스젠더 여성이라고 확인할 수 없으며 여성을 욕망하는 존재들을 역사 속에서 발굴 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스톤부치’의 존재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들의 욕망과 행동양식, 젠더표현이 자신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후, 스스로를 부치라고 명명하였다. 이처럼 부치는 고정된 본질을 기반으로 한 정체성이 아닌, 그 수행성을 강조하는 측면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부치는 이미 ‘여성’라는 그룹을 기반으로 한 본질주의 정체성을 넘어 다양한 젠더를 포괄하는 느슨한 정체성인 것이다.

한편 개비는 자신의 정체성을 엄정하게 분류하고 쪼개어 그 본질을 규명하기보다는 레즈비언 문화 속에서 수행적으로 인식되는 정체성으로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한다.

굳이 막 저를 엄청나게 이렇게 따지자면 뭐 어떻게 말할 수 있죠 논 바이너리 논 바이너리인 것 같고 또 또 섹스는 아주 또 그걸 하는 말이 있던데 호모 플렉서블 호모 플렉서블이고 남자랑도 잘 수 있거든요. 가끔 자고 싶기도 하고 뭐 아무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면 얘기할 수 있는데 아무튼 저한테 익숙한 문화는 레즈비언 문화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설명하는 게 편하고 저랑 엄청나게 동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개비)

또한 개비는 자신을 ‘여자’라고 확인할 수 없지만 동시에 디스포리아로 인해 트랜지션을 원한다고 확인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한다.

(디스포리아를 느끼신다든지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지? - 연구자)

엄청 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딱히 남자가 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너무 여자이고만 싶지 않은 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 (개비)

하지만 이런 개비도 부치라는 용어가 자신에 대해 꽤 많은 부분을 설명해주고 동시에 편리하다는 이유로 협상하며 자신의 부치 정체성을 구성한다. 오늘 날 부치라는 정체성은 보다 수행적으로 구성되며, 견고하게

구획되어 있는 성별이분법 체계의 경계 위에서 흔들리고 있는 존재들을 포괄하는 범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2. 탈코비언과 부치 담론

2015년 전후 온라인에서 1020 세대를 중심으로 페미니즘 운동이 전개 되면서 ‘탈코르셋 운동’이 주요의제로 떠올랐다. 그러면서 ‘탈코비언’이라는 존재들이 등장하였는데 탈코비언이란 탈코르셋과 레즈비언의 합성어로, 탈코르셋을 한 레즈비언을 말한다. 여기서 탈코비언과 ‘탈코러(탈코르셋을 한 사람을 이르는 말)’의 차이점은, ‘탈코러’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비연애이지만, 탈코비언은 연애에 제약을 두지 않는다. 오히려 여성들 간의 성애적 관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즉 탈코비언이라는 용어 중 레즈비언의 준말인 ‘비언’의 의미가 살아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탈코러와 탈코비언이 균일한 특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탈코비언의 특징은 짧은 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 등으로 겉에서 볼 때 자신을 여성이라고 판별할 수 있는 표지들을 최대한 제거한 외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레즈비언 사회에서는 그들을 보고 언뜻 남성성을 가진 부치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 부치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외양과 젠더표현을 중요시하고 최선을 다해 꾸미지만 탈코르셋은 외모를 가꾸는 행위들을 배격하기 때문이다. 탈코비언들은 또한 온라인에서 자신을 표현할 때 부치, 펌 등의 용어를 쓰지 않고 ‘탈코비언’이라고 자신을 간단히 소개한다. 탈코르셋을 했음을 통해 자신이 페미니스트임을 드러내는 동시에 상대방이 외모를 짐작하기도 편리하기 때문이다. 래디컬 페미니즘에 기반한 사조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부치-펌 관계가 이분법적이며 이성애를 본 따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여 배격한다. 사회적으로 구성된 젠더와 여성성, 남성성 모두를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또한 파트너로써는 자신과 같은 탈코비언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둘은 물론 비슷한 외양을 하고 있지만 그 외양의 의도와 외모를 대

하는 인식이 다르기에 어색한 긴장관계에 놓인다. 그러나 이들 모두 페미니즘적 의제에 공감하고 때때로는 연대하기도 한다. 이 둘의 관계는 양 끝단의 반대편에 위치한 적대적이고 대립적인 관계이거나, 접점이 전혀 없는 평행선에 놓인 관계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부치와 탈코비언은 겹쳐지면서도 다른 곳을 향하는 비선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이들의 어색한 관계를 탈코비언 두 명이 운영하는 팟캐스트 ‘환골탈레’와 부치 정체성을 가진 연구 참여자들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A: 근데 남자아이들은 몸이, 체구가 저희랑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긴머리에 치마를 입고 너무 여자 같은 그런 외형을 하고 잇지는 않는데 여자가 그래도 닿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남자? 그런 외형? 여기에 물론 남성숭배 같은 게 들어가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은 생각보다 보이는 거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인간의 기본형태 좀 괜찮게 생긴 인간의 기본형태에 대한 선망이 부치를 통해 드러난다고 생각했어요.

B: 그렇다면 여기서 사실 탈코르셋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

A: (중략) 저도 근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탈코랑 부치가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둘 다 디폴트 인간형이 되고 싶은 근본은 같은데 길을 굉장히 다르게 걷는 느낌이에요. 둘 다 목적지는 비슷한데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길을 가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B: 저는 시작점은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에 약간 탈코페미니스트를 찾는 흐름들이 좀 있잖아요. 레즈비언 판 안에서요. 그러니까 사실 탈코의 그 의의를 잘 아직 이해 못하신 분들이 원래 이제 부치의 모습으로 살아가셨는데 자기 이제 탈코한 사람이라고 약간 셀링포인트를 잡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시작점이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결국 도달하는 방향은 같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뭐 오육십 먹으면은 어떤 부분 같은 모습으로 계속 살아 온 거에 대한 의의가 있으니까.

A: 제가 시작하는 마음이 같다고 생각한 거는 일단 부치로 원래 살았던 분이라고 하면 왜 그렇게 살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엔 그 형태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거 아닌가 이 때문이거든요. 물론 처음 시작은 페미니즘적인 목적은 아니셨겠죠? 그치만 그 마음 속 깊은 곳에는 그게 더 좋다. 그게 더 좋아보인다 이런 생

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작점이 같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펌부치가 빵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부치라는 개념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뭐 여전히 펌하고 부치를 딱 나눠서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둘이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문제인 거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이분법에서 당장 벗어나기 힘들시다면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부치가 되려고 한 번 해보세요. 레즈의 끝은 결국 뭐다?

B: 비투비.

‘환골탈태 하고 싶은 레즈비언들을 위한 방송’을 표상하는 팟캐스트 방송 환골탈태⁴⁾의 운영자들은 부치를 ‘인간의 기본형을 선망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며, 남성적인 외모를 가지게 된 계기는 다르지만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동화될 존재라고 여긴다. 탈코비언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기본형’ 소위 말해 ‘디폴트’의 모습은 남자 아이돌의 몸과 닮아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탈코르셋이 탈성별화 되는 경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들은 부치의 외양 또한 남성적인 것을 짚으며 그 모습이 ‘인간 본연의 모습’이기 때문에 탈코비언들과 부치들은 ‘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이러한 같은 모습으로 살다 보면 결국 동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부치를 긍정하므로 레즈비언 관계에서도 비투비(Butch to Butch의 줄임말로 부치간의 로맨틱한 관계를 의미한다.)를 선호한다. 펌은 소거되고 부치만 남아있는 장이 탈코비언들의 연애의 장과 같다고 생각한다. 부치의 특질이라고 알려진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특질을 높게 평가하며, 오히려 ‘부치가 되자’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들은 한편으로는 부치를 하나의 범주로 인식하기보다는 일종의 밈(meme)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부치라는 범주와 어느 정도

4) 팟캐스트 ‘환골탈태’ 4화: 펌부치: 단풍손이면 부치 못 되나요? (2021.5.19.). (<https://www.podbbang.com/channels/1779551/episodes/24048183>).

‘환골탈태’는 탈코르셋을 한 레즈비언을 위한 방송을 표방한 팟캐스트로 2021년 팟빵에서 총 6회가 방송되었다.

협상하는 듯 보이나, 실은 부치를 하나의 온전한 범주로 인정하지 않고 부치의 스테레오타입 중 ‘주도적인’, ‘당당한’, ‘터프한’ 등의 긍정으로 여겨지는 특질만 추려내어 일종의 밈으로 사용하면서 기존 레즈비언 하위 문화와 타협하고 있다.

그러나 부치는 신화적인 남성의 몸, 디폴트라고 불리는 소위 말하는 ‘인간 기본의 몸’을 욕망하지 않으며, 어떠한 강령을 통해 수행되는 것이 아니다. 일례로 연구 참여자 지안은 스스로를 티부로 정체화하는데 지안의 남성적인 외모는 여성성의 표지를 제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을 찾아보니 만들어진 것’이다.

그냥 여자가 됐건 뭐 남자가 됐건 어떤 모델이 됐건 남들이 이런 머리를 하고 있길래 나도 저 머리 하고 싶어 어울릴 것 같아 했는데 나쁘지 않다. (지안)

지안은 실제로 패션에 관한 관심도가 높으며, 지안의 이러한 외모는 철저히 스타일을 연구하고 꾸미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들어진 것이다. 외모를 가꾸는 데 돈을 쓰지 않겠다는 탈코르셋 운동의 사조와는 다르게 부치는 때로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 스타일을 유지한다. 서아는 남성복을 즐겨 입으며 남성 정장을 구매하고 이를 몸에 맞게 수선하여 입는데, 이 과정이 오히려 일명 ‘꾸밈노동’에 가깝다고 말한다. 남성복을 입는다고 해서 반드시 외양을 꾸미는 데 노력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서아는 잘 갖춰진 깔끔한 남성복을 입는 게 오히려 코르셋이라고 느낄 때도 있다고 말한다.

그게 돈도 더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막 계속 다림질이나 드라이나 이런 거 해줘야 되고 그리고 막 옷도 좀 비싸고 그러니까요. 셔츠가 10만 원씩 하고 넥타이도 10만 원씩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저는 약간 더 이게 더 코르셋 같은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잘 어울리는 남성복에 이렇게 머릿도 기갈나게 이렇게 넘기고 되게 아무튼 그렇게 하려면 이게 더 힘들어요. 이게 그냥 애매한 여자 혹은 애매한 남자는 하지 않는 꾸밈 노동. (서아)

서아는 남성복을 입는다는 것과 돈을 절약한다는 것 사이에는 큰 연관성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꾸밈노동에 지불하는 돈을 아껴 성공하자’는 신자유주의적인 탈코르셋의 기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다. 서아의 꾸미는 행위를 노동이라고 불렀을 때 오히려 남성복을 입는 것이 여성복을 입는 것보다 서아에게는 더한 꾸밈노동이라는 것이다.

부치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꾸미는 건데. 아 막 머리를 짧다고 그러면 탈코라고 그래서 안타까워요. (강)

강은 머리가 짧다는 특징을 모두 ‘탈코르셋’으로 치환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낀다. 부치가 머리를 짧게 유지하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기본형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스타일을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치와 탈코비언들이 외모를 두고 서로에게 적대감과 차이점만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연구 참여자 이서는 청소년 시절 온라인으로 페미니즘을 접하고 나서 탈코르셋 운동의 기조에 깊이 공감하여 삭발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 한창 강남역 사건이 생긴 이후로 저는 17살 때 학교를 자퇴했어서 삭발을 하게 됐습니다. 탈코 관련된 이야기들이 논제가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했던 때였어요. 그때가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코르셋이란 거에 되게 많이 동의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밖에 10분 거리 밖에 나갈 때도 강박적으로 화장을 하고 다녔던 사람이었어서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그래서 한번 내가 완전히 이런 코르셋 없는 삶을 살아봐도 되겠다.(중략) 그리고 나서 한번 삭발을 해보고 화장도 하나도 안 한 진짜 남들이 보기에는 부치 같은 외향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때 뭐 어떤 모습이어도 저는 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중략) 이런 약간 꾸러기 부치 같은 느낌이 나오길래 머리는 길러야겠다. 난 기르는 게 예쁘다라고 생각을 해서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고 그렇게 저는 제 안에 있는 코르셋들을 되게 많이 덜어냈어 그 과정에서 선택으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서)

이서는 삭발을 해 본 후 오히려 자신에게 더 잘 어울리는 스타일과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스타일에 잘 알게 되었으며, 여성을 성적인 존재만으로 보려는 사회를 비판하는 탈코비언들의 기조에 공감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또 다른 연구 참여자 스콘은 주변에 레즈비언 친구들보다는 탈코르셋 페미니스트 친구들이 많은데, 자신과 비슷한 사람으로 탈코르셋 페미니스트들을 꼽는다. 그들이 레즈비언이 아니더라도 여성에게 강제된 관습들에 저항하는 행동에는 분명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오히려 레즈비언들 제가 많이 만나보지 않아가지고. 그런 좀 탈코 페미니스트분들을 만났을 때 오히려 뭔가 어떤 그런 어쨌든 그분들도 다른 의도이긴 하겠지만 그런 강제된 여성성을 탈피하고자 하는 분들인 거고 그러면 또 그분들도 오히려 쿠션어를 쓰지 않고 그분들은 사실 여성애자가 아니더라도 뭔가 어떤 외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옷차림새라든지 그런 것들이 비슷하고 생각하는 게 비슷하니까 그분들과 오히려 더 비슷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스콘)

이렇듯 부치와 탈코비언은 서로를 무조건 적대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부치 또한 여성혐오적인 사회에서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탈코비언 또한 부치의 일부 스테레오타입을 긍정하지만 수행하는 행위의 의도와 소망하는 효과가 다르기에 궁극적으로는 어느 한쪽으로 동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한편 개비는 탈코비언들이 부치-웹 관계를 배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한다. 레즈비언인데다가 탈코르셋까지 하고 나면 자신은 완전히 규범 밖에 서 있게 되는, 완전무결한 진공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자신을 시스젠더 이성애자와 교집합이 전혀 없는 반대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강박적으로 ‘이성애자 같은 부분’을 찾아 제거하려고 행동을 낳는다고 개비는 이야기한다.

아무튼 이런 거죠. 자기가 생각할 때 레즈비언이라면 이런 거죠. 자기가 생각할

때 퀴어는 아무튼 시스 이성애자가 아닌 거야 이성애자가 아닌 거야 이성애자의 반대향으로 생각을 하니깐 이성애자 같이 이성애자 같이 보이는 것들을 하는 거를 이성애 답습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개비)

개비는 부치 펠 관계 전체를 부정하는 것에 대해 탈코비언은 이성애규범적사회의 바깥에 존재하며 그것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하는 상상에 의문을 던진다. 이를 버틀러(1988)의 말을 빌려 설명하자면, 개비는 ‘행위 뒤의 행위자(doer behind deed)’를 상정하지 않고 있으며 젠더를 선택하는 것은 받아들여진 젠더 규범을 새롭게 조직화하는 방식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강은 부치-펠과 같은 이분법을 의심해보는 시도는 좋으나 결국에는 부치-펠을 긍정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결국 레즈비언 하위문화는 공유된 정체성을 통해 ‘사람을 만나려는 시도’를 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저는 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해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고, 진짜 그 전쟁이 끝나고 나면 결국 부치 펠을 나눌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그거를 없앤다면 다른 용어라도 생기겠지. (중략)
이분법적인 사고를 타파하기 위한 것들은 정말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부치가 그거를 그게 아니라는 거는 좀 나와야 되는 이야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강)

정체성은 ‘인식 가능한 것으로 정의되는 일련의 특성의 집합적 측면’ 또는 ‘개인을 지속적인 실체로 간주하는 일련의 행동적 특성’으로 정의된다. 또한 이러한 정체성을 ‘공유’한다는 것은 그러한 정체성의 공통된 경험에 참여하고, 사용한다는 것을 나타낸다(Cartier, 2005). 따라서 이렇게 공유되고 있는 정체성을 완전히 부정하고 고립된 개인으로 존재하고자 하는 시도는 어쩌면 새로운 용어 혹은 정체성을 낳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탈코비언과 부치는 그 외양이 닮아있고, 정도는 다르지만 탈코르셋 운동에 공감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특정한 외모를 추구하는 의도는 전혀 다르고 부치-펠 관계에 대한 관점도 다르다. 따라서

부치는 언젠가는 탈코비언 혹은 무성향과 같은 존재에 동화될 수 있는 정체성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 또한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그리고 어떤 정치에서도 의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레즈정치에서 뭐 의제라는 말은 안 맞지만. 부치가 사라져야 될 이유도 없고. 뭐 때문에 사라져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남성성, 남자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그렇다고 왜 부치가 사라져야 돼? 어떠한 정당한 이유가 없어요. 부치를 억압할 정당한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가시화 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부치들도 불편하거든요. 가시화 되는 부치들도. 저 이렇게 생겨도 아무도 회사에서 제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성지향성에 대해서 남자를 좋아하네 여자를 좋아하네 의문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피곤하거든요 사회생활하기. 사실 지금 머리 기르려고 파마한 거거든요. 사회생활하기 불편해서. 학교가 아니니까. 근데 부치가 참 좋죠. 제가 좋다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부치성을 버리고 머리를 길러야되나 해서 이제 긴머부 하자. 부치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부치가 존재냐를 가지고 생각하면 진짜 말할 게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치의 역사와 존재 이유. (수키)

수키는 짧은 머리와 꾸러기 부치스러운 외모 때문에 직장 생활이 평탄하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동료 직원들이 수키의 성별을 판독하기 어려워하고, 수키를 무언가 다른, 귀여운 존재라고 느껴 성정체성과 성지향성을 의심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키는 이러한 부치의 튀는 특성이 오히려 레즈비언을 가시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한다.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긴 머리를 하고 여성 정장을 입는 등의 수행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수키는 부치는 부치의 스타일을 고집하는 자랑스러운 존재라고 이야기한다. 수키는 레즈비언 사회에서 부치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모두가 '티 안나는' 스타일을 추구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한편 강은 부치니스란 레즈비언 여성에게만 한정되지 않은 좀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았다. 그 특성이 레즈비언 사회에서 하나의 문화가 되면서 가시화가 되었을 뿐이지, 레즈비언 사회 밖에서도 부치니스는 존재한다

고 이야기한다. 강에게 부치라는 것은 철저히 수행적인 정체성이기 때문에 레즈비언 사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부치라는 용어를 없앤다고 해서 그 부치니스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그런 전 부치라는 거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레즈비언에 두드러지게 나타날 뿐이지 그 외에도 어딘가에서 부치라고 불릴 만한 그러니까 이름은 좀 달리 표현될 수 있어요. 부치라고 불릴 만한 이 범위 안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하신 분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되게 생각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탈코도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

또한 강은 부치가 부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소속감을 준다고 보았다. 부치라는 정체성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용어를 없앤다고 해서 부치가 사라지지는 않으며 오히려 용어가 사라질 경우 불편을 초래한다.

부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부치라는 용어를 없애는 거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치라는 용어 안에서 안정감을 찾고 나의 정체성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 부터 나 부치! 하면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없애면 레즈비언들 자체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강)

강은 부치와 펌 앞에 여러가지 수식어들이 붙으면서 표현이 늘어나는 것을 긍정적으로 여긴다. 지금도 한국 레즈비언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수식어가 붙으며 부치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예전에는 이게 하나였잖아요. 남자라는 바지씨랑 치마씨로 가고, 이게 딱 두 개 있었으면 당연히 애가 텍이겠지 당연히 애가 김이겠죠. 그래야만 하니까 왜냐하

면 이게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의 카테고리는 굉장히 다양해졌고 굉장히 넓어졌는데 이걸 자꾸 쓰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넓어졌으면 당연히 이만큼의 더 많은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치와 펌과 깎과 텍과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이. 걸부속팸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굉장히 많이 쓸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맞아요. 논바이너리 중에 논바이너리가 약간 없어지는 것처럼 그 레즈비언 단어들 중에서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그렇게 굳이 안 찾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일단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내 자신을 더 찾을 수 있고 더욱 더 커뮤니티가 더 커지고 좀 더 좋은 방법 어쨌든 사람 만나고자 하는 일이니까.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

강은 부치의 정체성이 확장되며 존재하는 상황에서 부치가 전통적인 부치 규범 그 자체라고 여기며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자신의 스타일과 특성, 성향과 정체성을 함께 설명할 수 있는 용어는 지금으로서는 부치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강은 레즈비언 문화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 만나고자’하기 때문인데, 부치는 이렇게 ‘사람 만나고 싶어 하는’ 레즈비언들에게 지금까지도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부치의 특성은 ‘탈코비언’ 혹은 ‘무성향’ 등의 용어로는 설명되지 않는 맥락을 가진다. 따라서 부치는 비판을 받을지언정, 그 모습을 끊임없이 확장하고 흔들릴지언정 다른 정체성에 동화될 수 없는 특징을 가진다.

제 3 절 부치 규범의 위반

1. 부치 규범의 균열

앞서 부치가 ‘고정되지 않는 정체성’이라고 말한 이유는 부치 정체성은 고정되어 있는 규범을 따르다기보다는 끊임없이 위반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스톤부치’는 반드시 펴를 욱망하고, 잠자리에서의 애무를 거부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부치는 마치 돌처럼 단단하고 견고한 이러한 규범을 따르기보다는 위반과 협상을 통해 실천되어진다. 망고는 자신을 소개할 때 종종 ‘가짜 부치’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제가 좀 뭐랄까 근데 저도 어디 가서 소개할 때 저를 좀 가짜 부치라고 소개하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왜냐면 일단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부치한테 기대하는 걸 제가 좀 못해줘서. 힘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펴들이 뚜껑을 따 줄 정도로 제가 힘이 약하거든요. 음. 어. 그냥 제가 먼저 가짜 부치예요 라고 속이고 들어가는 게 그 부치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예의고 부치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예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럴 때 더 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망고)

흔히 부치에게는 다른 여성을 극진하게 대접하거나 배려하는 모습이 기대되지만 망고는 자신의 친절은 자신의 연인에게만 베풀고 싶으며, 모든 여성에게 친절을 베풀기는 심리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버겁다고 말한다. 그는 선천적으로 힘이 세고 마초적이지도 않아서, 자신의 스타일만 보고 전통적인 부치 규범을 응당 수행할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뒤늦게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일부러 ‘가짜부치’라는 단어로 자신을 소개한다. 망고는 여전히 부치이고 자신을 부치라고 설명하지만 타인에게 소개할 때 ‘가짜’라는 접두사를 붙여 자신이 모든 부치 규범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며, 분명히 어떠한 위반이 일어날 것임을 예고한다.

인성 역시 선천적으로 키가 작고 마른 체형이기에 듬직한 ‘스톤부치’의 이미지를 연출하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처음 퀴어로 정체화를 했을 때는 자신이 부치 규범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근데 뭐지 그래서 되게 약간 처음에 시장에 내던져졌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한 그게 되게 컸어요. 그 바이섹슈얼로 그거를 했을 때도 뭔가 그러니까 나는 작고 마른 체형이니까 펌으로 포지셔닝 하는 게 더 잘 팔리는 거예요. 차라리 좀 이렇게 이렇게 단발 이렇게 하고 화장도 좀 이렇게 하고, 아주 아주 여자 옷을 입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그렇게 하는 게 실제로 부치인 파트너도 이렇게 있었고, 그러다가 하지만 그런 걸 더 이상 안 하게 되고 제가 난 부치구나 부치로 충분히 받아들여지는구나 언니는, 꾸부라는 그거를 알게 되고 그러면 나는 꾸부로 이제 포지셔닝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이제 받아들이고 그리고 꾸부라는 걸 알게 된 이후에 지난 날들을 돌이켜 봤을 때 너무나 저는 꾸부였던 거죠. 스냅백 이렇게 뒤로 쓰고 남자 아이돌 춤 추고, 으르렁 추고 엑소 으르렁 추고 스냅백 이렇게 진짜 제가 스냅백 환장해가지고 그 때 엄청 모으고 그랬었거든요. 난 꾸부네. 나는 확실히 나를 포지셔닝 했어. (인성)

그러나 인성은 타인에게 자신이 충분히 부치로 인식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꾸러기 부치’라는 용어를 통해 확대된 부치의 범주를 알게 되면서 부치 규범을 위반하는 자신의 부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었다.

수키 또한 꾸러기 부치가 자신의 정체성을 잘 설명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여기서 꾸러기 부치란 어린 장난꾸러기 아이 같은 발랄함을 지닌 부치로, 주로 캐주얼한 패션 스타일을 한 부치를 일컫는다.

좀 약간 순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장난꾸러기 같은 꾸러기가 장난 꾸러기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게 있고 좀 배려도 그냥 딱 적당히 하는. (중략) 근데 좀 순해야 되는 것 같아요. 꾸러기부치들은. (중략)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거나 그러지 않는 사람이 저는 꾸러기 부치가 좀 그런 쪽인 것 같아요. 좀 순한 게 좀 있죠. (수키)

수키는 자신이 주도적이고 남들을 이끄는 성향이기보다는 ‘순하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지 않은 성향’이라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치 범주 중 하나라고 불리는 장난기 많고 발랄한 꾸러기 부치가 자신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느낀다. 이렇듯 전통적인 부치 규범에 대한 위반은 계속해서 발생되며 반복되고 있다.

2. 뽀뽀를 욕망하지 않을 수 있는 부치

부치의 반대편에는 보통 뽀뽀가 존재한다고 상상되며, 부치-뽀뽀는 마치 이성애중심적인 사회에서 남자-여자처럼 서로를 욕망한다고 전제된다. 그러나 반드시 뽀뽀만을 욕망하지는 않는 위반적인 부치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 하고 되게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100 퍼센트 여자가 좋아. 근데 그게 절대 화장이나 긴머리, 치마가 절대 절대로 아니다. 머리를 뽀뽀 깎고, 키가 180되어도 상관없어요. 여자는 여자예요. 단지 내가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한 치 의심도 없고. 이게 완전한 여자인 거죠. 저는 그런 여자가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어떤 여자의 핵에 있는 느낌? 이렇게 여자의 어머니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까지도 여자라고 부르고 여기까지도 여자라고 부르고. 여기에 있는 사람도 자기가 여자라고 부른다면 여자겠지만. 저는 이 안에 있는, 핵에 있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강)

강은 자신이 끌리는 대상은 뽀뽀라기보다는 흔들림 없이 여성으로 정체화한 여성이라고 말하며, 이것을 나타내는 것은 화장이나 긴머리, 치마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여성스러운’ 표지가 절대 아니라고 말한다. 이는 전통적인 부치-뽀뽀 관계가 공고하지 않으며, 부치의 정체성을 구성한다고 해서 반드시 뽀뽀를 욕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서는 자신을 긴머부로 정체화하는데 자신이 끌리는 상대는 자신과 비슷한 긴머부라고 말하며 비투비 관계를 선망한다고 이야기한다.

어쩔 그런 사람들만 만났나 싫어가지고. 자기는 전천이라고 주장하지만 긴머부스러운 사람을 유구하게 만나고 유구하게 좋아하고 전천이지만 긴머부러운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동질감을 느끼고 끌리는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저도 비투비이긴 한 것 같아요. (이서)

수키 또한 연인을 만날 때 곁으로 드러나는 스타일을 면밀히 따지거나, 펌 혹은 부치 정체성을 가졌는지 따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저도 머리 짧은 사람 머리 단발인 사람 머리 기른 사람 따져가면서 연애하지 않았거든요. 아무 상관없거든요. 머리 길이, 펌부치. 근데 저도 온택 펌보다는 온 깍부치도 싫지만 그냥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사람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 관계성에서 인간 관계성에서 섹스를 섹스는 당연히 인간관계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건데. 근데 그 관계성의 지속을 생각했을 때, 관계의 지속성? 그러면 진짜 깍엔택이라고 하잖아요. 관계의 지속성이. 근데 기버가 있고 테이커가 있다고 치면 이 기버도 테이커 같은 면이 있잖아요. (수키)

수키는 자신에게 주고 싶어하는 ‘기버’의 성향이 있긴 하지만, 그 반대 성향인 받고 싶어하는 ‘테이커’ 같은 성향도 조금은 있다고 말하며 외양 혹은 구성되는 정체성 보다는 이러한 성향이 자신에게는 상대를 찾을 때 조금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어떤 하나의 특성으로 고정되지 않으면서 부치로 정체화하는 사람들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협상되는 것이 부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3. 패러디가 아닌 부치

그렇다면 부치가 ‘남자를 따라하는’, ‘남성적인 레즈비언’이라는 좁은 의미에 대해서 부치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남자 없는 남성성’을 전유하고 있었고, 자신의 남성성의 원본이 남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연구자: 부치를 개인적으로 다시 정의한다면 뭐라고 정의하고 싶으신지?)

근데 정말 돌고 돌아 돌고 돌아서 다시 그냥 남성적인 레즈비언 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저는 그게 어느 정도의 진실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돌고 돌고 돌아 이게 해서 돌고 돌아 이게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거가 돼서 지금은 부치? 남성적인 레즈비언 남자 역할을 하는 레즈비언이 오히려 제일 진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옛날에는 아니 왜 부치와 펌은 남자 역할이 여자 역할이 아니야 그런 이성애의 답습이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면은 부치한테의 남자 역할 펌의 여자 역할 이라면 굉장히 이성애 중심적인 설명 같고 그러다 보니까 부정확한 설명이고 오히려 뺀 설명이다. 그래서 그거 아니다라고 해주고 싶었고 나도 그럼 부치는 뭐라고 정리해야 될까 이랬으면 오히려 그래 그런 거 아니지 그런 거 아니지 남성적인 남성적인 레즈비언 남자 역할 하는 레즈비언 왜냐하면 이제는 남자도 하나의 역할이고 남자도 하나의 룰이자 특성이고 그런 거를 오히려 다 이제 통달하고 나서는 맞아 사실 그게 제일 맞는 설명이야 약간 이런 거. 오히려 반대, 오히려 반대가 돼서 그때 진짜 남성적인 남자를 보면은 진짜 부치다. 진짜 참 부치다. (인성)

인성은 오히려 남자 없는 남성성을 구축한 부치들의 특질들을 남성들이 모방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고, 남성성과 남성이 동의어라고 생각했을 때는 부치가 남성적인 레즈비언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싶었지만, 결국은 수행적으로 구성되는 여성의 남성성,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육체를 가로질러 완성되는 남성성을 긍정하게 되었다.

부치적인 펌들은 남성적인 레즈비언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나는 부치 그 자체를 좋아하는 거다라고 얘기 하는 거 같아요. 부치다운 여자를 좋아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사실 주류사회에 저를 어필하거나 설명할 때 남성적인 레즈비언이라고 말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들이 어떻게 부치다운 여자라는 말을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뭔가 저도 이십대 초반에는 적합한 단어를 찾으

려고 되게 많이 애썼는데. 정확한 단어라는 게 있나? 제 여친이 언어학 전공인데요. 그냥 듣다보니, 언어학 얘기를 듣다보니까 정확한 단어를 찾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문화적으로 이해되는 단어가 제 일순위인 거 같다. 그리고 그게 날 이해시키기 제일 쉽고. 그렇다면 그걸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망고)

망고는 언어의 사회적 측면에서 봤을 때 레즈비언 하위문화에서 사용되는 단어인 부치라는 용어만을 사용하여 다시 부치를 설명하는 것은 모순적이며,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지도 않다고 이야기 한다. 망고는 ‘남성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거두고 정확하게 부치를 표현하자면 ‘남성적인 레즈비언’이라고 다시 정의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역설적이게도 ‘남성적인 레즈비언’을 다시 ‘남성적인 레즈비언’으로 정의하면서 비로소 남자 없는 남성성을 상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원본과 패러디라는 이분법에서 멀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4. 유머로 소비되는 부치

한편 오늘 날 부치-웹 관계, 특히 부치라는 용어는 레즈비언 문화에서 하나의 유머이자 농담이 되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농담이란 ‘실 없이 놀리거나 장난으로 하는 말’을 일컫는다. 그러나 사회적인 의미체계에서 ‘농담’은 말 그대로만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다양한 사회적 의미를 전달하며 동시에 현실세계에 대하여 개인들이 해석하고 있는 차원을 보여주는 말행위 범주라고 할 수 있다(최진숙, 1995). 베르그송은 유머는 사회적·도덕적 역할이 있다고 이야기하였는데(Bergson, 1911) 웃음의 목적은 사회적으로 불편한 태도를 부드럽게 그러나 확고하게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너무 괴팍하거나 너무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을 보고 웃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사회가 스스로 더 나은 곳으로 발전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베르그송은 웃음은 우리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배타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웃음은 특정한 성격 특성이나 행동의 비탄력성을 일깨워주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자신의 방식에만 정착하는 것을 막아준다. 다시 말해 웃음은 우리 사회에 탄력성과 자유로움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Bergson, 1911).

이러한 베르그송의 통찰에 의하면 부치에 관한 농담과 유머 또한 레즈비언 문화 안팎의 비탄력성을 일깨워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여성들 간의 관계에서 남성들이 할 법한 행동이라고 여겨지는 행동들에 관한 농담을 하면서 성차별적인 우리 사회의 비탄력성을 비판하기도 한다. 또한 경계되어야 할 부치상에 대한 농담을 하는 것은 무조건 그들을 처벌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레즈비언 문화 내에서 경직된 부치상을 환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우리가 같은 여성으로서의 뭔가를 공유하고 있고 이 사람이 전혀 남자가 아닌데도 어쨌든 이런 수행을 한다는 점이 굉장히 재밌고 일종의 조크인 거죠. 한남은 진짜 찐한남이라서 싫은 거라면은 어쨌든 한남 부치는 어쨌든 한남이라도 진짜 한남 같다. 이러면 우리끼리도 친구끼리도 제가 밥줘충이라고 스스로 그러거든요. 나 밥줘충이야 완전 밥줘충 나 한남이야 이러면 놀리고 막 되게 우스개소리로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도 진짜 한남은 아니니까 왜냐하면 진짜 남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한남 부치도 뭔가 별로 위협의 대상처럼 여겨진다고보다 어떤 농담거리 우스갯거리로 되잖아요. 오프 했더니 완전 가부장 부치더라 완전 한남부치더라 되게 조크거리가 되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진짜 한남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피차 서로 남자 탈락한 처지고 약간 너도 얼마나 남자 수행하느라 애쓰니 너도 한남이 되기 위해 얼마나 애쓰니. 이런 동정심 그게 웃긴 거죠. 그러니까 조크가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인성)

인성은 생물학적 혹은 법적으로 남성은 아니지만 때때로 남성복을 입거나 남성으로 패싱되며 흔들리는 정체성을 가진 자신을 포함한 부치들을 ‘남자 탈락’하였다며 농담을 하기도 한다. 인성은 의도적으로 남자(male)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시스젠더 남성을 구체적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이는 농담을 통해 경직된 시스젠더 남성 중심의 남성성을 환기하고, 동시에 이성애규범적인 사회에서 규범을 위반하는 부치들의 탄력성을 일

깨우기도 한다. 요컨대 레즈비언 문화의 부치라는 정체성은 사회적 의미들을 전달하고 공유하며 규범이 강제된 사회에 탄력을 주는 농담으로 기능하고 있다.

근데 저는 그런 뭐랄까 좀 약간 되게 게이 문화 같은 데서는 좀 되게 웃기거나 좀 재미있거나 되게 특이하고 막 되게 반짝반짝하고 이런 걸로 좀 사회적으로 패싱이 되는데 약간 레즈비언은 좀 우울하고 약간 검정색 입고 저는 이렇게 되는 게 옛날부터 좀 되게 싫었어요. 그리고 약간 근데 왜냐면은 어떤 이게 긍정 소비이든 부정 소비이든 간에 약간 헤테로들도 약 약간 탐 바텀 막 하고 공수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렇게 좀 양지화가 되는 게 좋지 않나 는 의견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부치랑 펌이라는 용어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빌려온 게 아니라 레즈비언 문화 사이에서 자연적으로 되게 발생된 단어이기 때문에 이걸 없앤다는 거는 그 문화살인 같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진짜로 그런 그러니까 탐 바텀이런 그런 포지션이고 개인의 개인 용어 사진 이런 것도 쪽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놓고 이태원 게이네 종로 게이네 이런 걸 하는데 그게 긍정적인 건 아닐지라도 어쨌든 그들이 그 씹고 뜯고 놀 수 있는 어떤 문화인 건데 우리는 몇 개 없는 것 중에 더욱더 부치 펌 가지고 놀고 어떤 되게 멋있는 어떤 여성을 보고 완전 개부치 같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건 좀 너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부치펌이라는 용어는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스콘)

스콘은 게이문화가 단편적으로나마 가시화가 되고, ‘특이하고 반짝반짝한’ 말 그대로 ‘gay’한 이미지를 어느 정도 갖는다는 점을 언급한다. 가시화된다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레즈비언 하위문화 중 가시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치-펌 농담이라고 말한다. 멋있는 여성을 보고 그 여성의 정체성과는 상관없이 ‘부치’라고 부르는 것은 일종의 농담인데, 이를 통해 이는 이성애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도 여성을 욕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부치라는 용어를 통해 여성의 남성성을 가시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스콘은 이런 농담이 즐겁다고 이야기하며, 이러한 부치에 관한 농담과 그 기능이 지속

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 부치는 이렇게 하나의 농담이 되어 레즈비언 문화에서 탄력성, 자유로움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제 5 장 결론

본 논문은 2015년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형성된 래디컬 페미니즘의 흐름과 1020 세대의 주요의제였던 ‘탈코르셋’을 통해 **가시화된 탈코비언 담론을 분석하고**, 이것이 레즈비언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래디컬 페미니즘의 재소환과 함께 소환된 부치-멤 관계에 대한 비판에 대해, 그것이 과연 타파되어야 할 ‘악습’인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실재하는 한국 청년 부치들의 목소리를 통해 부치의 위치와 재현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오래된 서구의 개념이자 용어인 부치가 한국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치라는 개념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제시하였다. 나아가 레즈비언 하위문화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좁은 의미의 레즈비언, 그리고 좁은 의미의 부치가 실재하는 레즈비언과 부치들의 존재를 모두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는 연구질문으로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를 통해 실제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 레즈비언들과 부치들이 자신을 어떻게 부치로 의미화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여성으로 동일시 하는 여성’을 미덕으로 여기고 ‘여성’이라는 범주를 고정시키며 정치적 레즈비언이 될 것을 호소하는 ‘탈코비언’이라는 정체성과 달리 여성이라는 정체성과 그 경계에 선 존재들을 느슨하게 포괄하는 부치라는 정체성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부치는 레즈비언 하위문화 안에서 다양하게 변주되는 남성성을 표현하고 있었으며, 규범을 위반하고 실천을 통해 정체성을 확장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레즈비언 하위문화에서 부치라는 존재는 실천이자 자신을 드러내는 범주인 동시에 하나의 밈(meme)이자 농담으로서 작용하며 레즈비언 공동체에 자조적이고 자정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즐거움을 시사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부치라는 정체성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그다지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부치 규범에는 끊임없는 협상과 위반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의 청년

부치들은 이를 통해 넓고 느슨한 지칭어 안에서 부치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었다.

한편 페미니즘과 관련한 변화로서 부치 정체성 안에서도 ‘한남 부치’와 같은 방식의 해계모니 한국 남성성과 갈등하는 영역을 드러내는 지칭어가 생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근래 ‘한남 부치’라는 용어가 생산된 과정과 이들에 대한 낙인을 통해 부치 정체성의 재현과 인식에 대한 논의들 속에는 반드시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지 않더라도 남성성의 부정적인 차원에 대해서 경계하고 이를 가려내는 시도들이 녹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재현하는 남성성은 판타지적인 남성 아이돌의 남성성이기도 하였고, 쿼어 남성의 남성성이기도 하였으며, 해로움이 제거된 남성성이기도 하였다. 이 다양한 남성성들은 남성 신체와 상관없이 존재할 수 있는 남성성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본 연구는 레즈비언 하위문화 안에서 부치라는 범주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부치라는 정체성은 하나의 유희로서 레즈비언 문화에 다양함을 불어넣기도 하고, 인식틀 혹은 삶의 양식으로 기능하면서 편의성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부치라는 정체성은 더이상 ‘여성의 몸으로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이라는 정치적 레즈비언이 사용하는 좁은 레즈비언의 정의, 혹은 ‘남성적인 레즈비언’이라는 부치의 좁은 정의 속에 가둘 수 없었다. 부치의 수행을 통한 규범의 위반이 모두 전복적인 행위라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젠더 다양성이 곧 해방과 자유를 의미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부치는 정치적 미덕을 위해 ‘새로운 규범’을 강박적으로 강요한다기보다는, 공동체에 손쉽게 안착하지 못했던 남성적인 스펙트럼 속의 여성들에게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

부치가 재현하는 남성성(으로 가정되는 것)은 모두 균질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성질을 통해 부치라는 범주는 강요된 규범에 균열의 틈새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부치라는 범주를 단순히 ‘넓었다’라는 이유로 모두 제거하기에는 부치는 생각보다 넓은 의미

로 많은 이들을 포괄하고, 레즈비언 하위문화와 상호작용할 수 있게 삶의 양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 레즈비언 하위문화에서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부치라는 범주를 주목하고 이를 분석하였으나, 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로 나아가기보다는 현존하는 부치의 흔적들, 그리고 남성적인 레즈비언의 흔적들을 수집하여 이를 해석하는 것으로 연구를 끝맺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한국 부치의 정체성과 여성의 남성성에 대한 이론적 연구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에 연구의 수와 양이 현저히 적은 레즈비언 하위문화, 특히 한국 레즈비언 하위문화 속의 부치라는 존재를 포착하고 의미화 했음에 그 의의를 갖는다.

참 고 문 헌

<논문>

공연화. 2021. "'여성' 계급으로부터의 탈피 -모니크 위티그 이론으로 읽는 한국의 4B 운동-". 『젠더와사회』 제32집. 39-72.

김보라. 2020. "레즈비언 연속체와 공동언어의 가능성 —1990~2000년대 여성문학작품의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50, 418-437.

김보명. 2020. "'여성 공간'과 페미니즘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배제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제 71호.

김애라. 2019. "'탈코르셋', 갯레디위드미(#getreadywithme) : 디지털경제의 대중화된 페미니즘". 『한국여성학』 제35권 제3호 43-78.

김주희. 2017. "'독학자들'의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 지식문화의 현재성에 대한 소고 : 신간 페미니즘 서적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63호, 351-379.

김지혜. 2021. "공격적 '여성' 중심주의의 사회적 맥락과 전개 양상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제 31권 제 2호. 125-159.

끼리끼리(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2004. "한국 레즈비언 인권운동 10년사". 『뉴 래디컬 리뷰』 20, 39-68.

나영. 2017. "모순과 혐오를 넘어 페미니즘 정치를 향하여." 『황해 문화』. 겨울호. 98~116.

박김수진. 2018. "60대 레즈비언, 윤김명우 이야기". 『문학들』 제 53호. 332-362.

배성민, 정희성. 2018. "퀴어와 공간의 관계 재구성". 『공간과사회』 제28권 1호. 194-226.

윤성옥·성승연. 2011. "성적지향에 수용적인 레즈비언의 젠더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4), 1017-1049.

윤아영. 2013. "국내 여성 동성애자의 장소 형성과 문화 실태". 『여성연구논총』, 13, 69-107.

이상희. 2013. "동성애자의 고민도 '음란물'이던 그때". 『한겨레21』. 960호.

이서진. 2007. "게이 남성의 장소 형성-종로구 낙원동을 사례로". 『지리학논총』 49, 23-44.

이종임·홍주현·설진아. 2019. "트위터에 나타난 미투(#Me Too)운동과 젠더 갈등이슈 분석: 네트워크 분석과 의미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제34권 2호. 100-146.

이효민. 2019. "페미니즘 정치학의 급진적 재구성: 한국 'TERF'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제34권 제3호, 159-223.

정경운. 2002a. "여성 성적소수자의 가상공간 활동에 대하여". 『뉴 래디컬리뷰』 진보평론 2002년 겨울 제14호. 180-202.

정경운. 2002b. "한국 사회의 레즈비언 담론 양상". 『민주주의와 인권』 . 2(2), 57-90.

하예지·서미경. 2014. "데이트 폭력 인식과 폭력경험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0집 4호. 79-103.

Butler, Judith. 1988. "Performative Acts and Gender Constitution: An Essay in Phenomenology and Feminist Theory". Theatre Journal, Vol. 40, No. 4.

Cartier, Marie. 2005. "A Theology of Corporeality Embodied in the Butch Femme Bar Culture of the 1950s and 1960s", The Continuum Publishing Group Ltd.

Smith, Elizabeth A. 1989. Butches, Femmes, and Feminists: The Politics of Lesbian Sexuality, 『NWSA Journal』 vol.1, No.3. 398-421.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Straus, M. A. 1996. Hamby, S. L., Boney-McCoy, S. and Sugarman, D. B.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단행본>

정희진. 2018. 피해자 정체성의 정치와 페미니즘. 권김현영 (편),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 (202-236쪽). 서울: 교양인.

전혜은. 2021. 『퀴어이론 산책하기』.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이해솔. 1999. 「한국 레즈비언 인권운동사」. 한국여성인권운동사, 한국여성의전화 엮음.

손희정. 2017. 『페미니즘 리부트 : 혐오의 시대를 뚫고 나온 목소리들』. 나무연필.

권지미 외. 2021. 『퀴어돌로지 전복과 교란, 욕망의 놀이』. 오월의 봄.

R.W. 코넬. 2013. 『남성성/들』. 안상욱·현민 옮김. 이매진.

애슐리 마텔. 2017. 『LGBT+ 첫걸음』. 팀 이르다 옮김. 봄알람.

Foucault, Michel. 1997. "Ethics". translated by Rober Hurley and others, New York press.

Bergson, Henri(1911) *Laughter: An Essay on the Meaning of the Comic*, translated by Cloudesley Shovell Henry Brereton and Fred Rothwell,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Rubin, Gayle(신혜수 , 임옥희 , 조혜영 , 허윤 역). 2015. 『일탈: 게이일 루빈 선집』 . 현실문화.

Butler, Judith. 2011. 『Bodies that matter』 . Routledge.

Butler, Judith(조현준 역). 2008. 『젠더트리플』 문학동네.

Halberstam, Judith(유강은 역). 2015. 『여성의 남성성』 이매진.

Faerman, Lillian. 1991. 『Odd girls and twilight lovers: a history of lesbian life in twentieth-century America』 . Columbus Press.

Radicalesbians. 1970. *Manifesto-Documents from the Women's Liberation Movement*, SpecialRoutledge Collections Library, Duke University.

<인터넷 기사>

고한솔. 2017.2.21. “#문단_내_성폭력’ 기록 프로젝트, 하루 만에 목 표금액 초과 달성”, 『한겨레』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354226?sid=103>)

(최종 검색일: 2022년 12월 26일)

김혜정. 2004.12.05. ‘부치/팸 이분법이 불편한 이유’.

(<https://ildaro.com/1946>)

(최종 검색일: 2022년 12월 26일)

서울신문. 2005. 8.19. “낭만·추억등 명동엔 多있다”. 『서울신문』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0054939?sid=102>).

(최종 검색일: 2022년 12월 26일)

이남희. 2003.4.30.. ““동성애자 너 확 분다” 아웃팅 공포.” 『주간
동아』 282호. (54-55쪽).

(<https://weekly.donga.com/List/3/all/11/71076/1>.)

(최종 검색일: 2022년 12월 26일)

<잡지>

‘전국 4대도시 게이, 레즈바 파헤치기’. 『BUDDY』 제 2호. 4월
호. 1998.

Nestle, Joan(1981). "Butch-Fem Relationships". 『Heresies 12』 .

레인보우링 기획단. 2011. 『레인보우 링 시즌3』 2호. 한국성적소
수자인권문화센터.

레인보우링 기획단. 2009. 『레인보우 링』 5호. 한국성적소수자인
권문화센터.

전해성. 1996. 레즈비언 커뮤니티의 다양성. 『또 다른 세상』 3호.

한채윤. 2009. 우리가 몰랐던 바지씨, 치마씨 그리고 부치와 팸의 어원. 『레인보우 링』 5호.

<팟캐스트, 블로그 및 웹사이트>

끼리끼리, 2004.05.02. “‘서동진 씨의 커밍아웃 발언을 비판한다’ 를 발표하며”. (<https://chingusai.net/xe/freeboard/61088>)
(최종 검색일: 2022년 12월 26일)

닷페이스. 2017.7.21. “우리가 몰랐던 성소수자 여성의 역사- 영화 불온한 당신 감독 인터뷰”. (https://www.youtube.com/watch?v=IIWvDQW__9Y)
(최종 검색일: 2022년 12월 28일)

닷페이스. 2019.10.14. “70대 레즈비언 모임에 따라가 보았다.” (<https://youtu.be/JQt6I83b6uA>)
(최종 검색일: 2022년 12월 28일)

닷페이스. 2019.10.30. “옛날 레즈비언은 어떻게 살았을지 기록하는 사람들.” (https://www.youtube.com/watch?v=gd_c1ZitIsc&t=248s)
(최종 검색일: 2022년 12월 28일)

더 위키. 2022.7.20. “성소수자 은어”. (<https://thewiki.kr/w/%EC%84%B1%EC%86%8C%EC%88%98%EC%9E%90/%EC%9D%80%EC%96%B4>)
(최종 검색일: 2022년 12월 29일)

리타. 2016.5.26. “탑엘 사용자들의 어휘 사용 실태 연구”.
(<https://blog.naver.com/hotleve/220719741380>).
(최종 검색일: 2022년 12월 26일)

언니 네트워크. 2017.3.29. “L커뮤니티야 어땀니? 내 목소리 들리
니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6972825&memberNo=32557501>)
(최종 검색일: 2022년 12월 26일)

언니 네트워크. 2017.3.30. “불안, 문만 잠그면 안전합니까?”.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6986578&memberNo=32557501>).
(최종 검색일: 2022년 12월 26일)

생방송 여자가 좋다. 10 화 “야 거기 머리 짧은애” “네?” “웃겨봐”
“네?” 생방여 첫 게스트! 유사부치 스탠드업 코미디언YenaChoi
(최예나). (2022. 5. 3.)
(<https://www.podbbang.com/channels/1783566/episodes/24339747>).

환골탈레. 4화 “단풍손이면 부치 못 되나요?”. (2021.5.19.).
(<https://www.podbbang.com/channels/1779551/episodes/24048183>).
(최종 검색일: 2022년 12월 26일)

Oxford English Dictionary. “butch”,
(<https://www.oed.com/view/Entry/25321?rskey=W7zROW&result=1&isAdvanced=false#eid>)

(최종 검색일: 2022년 12월 26일)

RADSBOS. 2021.3.2. “야! 너도 레즈비언 할 수 있어#3”.
RADSBOS. (<https://brunch.co.kr/@radsbos/31>)

(최종 검색일: 2022년 12월 30일)

Them. 2018. 8. 21. InQueery: The REAL Meaning of the Word
"Butch". (<https://www.them.us/story/inqueery-butch>)

(최종 검색일: 2022년 12월 26일)

Young Lesbians' 'Butch'

Experience and Interpretation

Woojin Song

Interdisciplinary Programs in Gender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2015, through the period of so-called 'feminism reboot', feminism has become widespread as a value that young women take meaning into account of their lives.

However, apart from the effect of increasing interest in feminism, it also had the effect of recalling old debates. As young women summoned radical feminism as a theoretical basis for analyzing gender discrimination, disputes that have been constantly repeated in history also appeared from the surface. The main issue of these debates was the issue of the subject of 'essential women'. This led to the emergence of TERF in the mainstream feminist discourse, which also led to changes in queer politics. In addition, specifically, the debate on the 'Butch-fem' relationship, an old debate of lesbian subculture, has emerged as an issue.

Nevertheless, domestic research on lesbian subculture was absolutely insufficient. As for the claim that the "Butch-fem" relationship, which has been summoned once again, is anti-feminist,

this study seeks to question and uncover old misunderstandings about butch.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experiences of real butches and interpreted them by looking into the current practice of young butches. This study attempted to interpret their experience and practices.

First of all, this study looked at the history of the subculture surrounding Butch and Femme. It was necessary to investigate how the term "Butch" was invented in the American lesbian subculture and how it came to be used in Korea. In addition, the significance of Butch was discovered by reviewing the theory of women's masculinity.

As a result of previous studies on Korean lesbian culture,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n identity that revealed the masculinity of a lesbian called "Baji-si" even before the term "Buch" was widely used in Korea. Korea's lesbian community was formed around the "Bajsi-Chimsi," which appeared similar to the Western "Butch-Femme" relationship, which spread through the development of PC communication and online gatherings. However, SNS is currently the center of the formation of a lesbian community and has been a space where various debates are underway. Focusing on this online space, "young people who declare to be lesbians" have appeared in the lesbian community through various codes of conduct derived from the "Escape-the-corset movement" since 2015. The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women in the narrow definition and lesbian in the narrow sense as well, and insisted on preserving their purity. As they build up their argument, they rejected the existence of queers, which led to tension in the affect of hatred.

Therefore, this study looked into these tensions and re-examined the butch subject of exclusion. Furthermore, in this phenomenon, it

looked at what experiences the butches were having and how they were practicing their butchness.

As a result of interpreting this, it was confirmed that the reproduction of a butch was clearly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image. The connection between the traditional stereotyped butches and today's butch was weak, and it was confirmed that new butch aspects were emerging. They were reproducing the masculinity which they wanted to express, and were recognized as "butch" through it. In addition, the most important feature of Butch was the 'giving' feature. They were practicing their butchness in an attitude toward the other woman.

On the other hand, feminism reboot also contributed to the subdivision and change of Butch's terms. The main reason why the existing "Wangbuchi" turned into a protruding existence called "Hannambuchi" was the "mirroring" that appeared through feminist reboots. Feminist reboots were affecting the butch category, but this was rather a feminist purification.

In addition, Butch had several functions within the lesbian subculture. Butch provided a way of life and a framework of perception, providing a foundation for neglected beings to recognize themselves, which was largely done through naming, calling, and response. In addition, butch was already acting as a category that crossed biological boundaries. Therefore, the so-called 'lesbian who escaped from the corset' and Butch could never be considered as the same category.

As such, the discourse surrounding Butch was expanding through violations of norms, and now Butch were cracking the existing image of traditional masculinity and Butch. They do not necessarily desire a femme, but rather violate the schematic of the Butch-Femme

relationship. In addition, rather than parodying men, the Butch category was functioning as a humor that twisted hegemony masculinity and provided resilience to lesbian subculture.

In conclusion, Butch was functioning as a category that encompassed beings standing at the boundary beyond 'biological women'. Those who need the Butch category still exist, and it was constantly changing, unlike the stereotype. In this respect, this study confirms that butch is still a significant category in Korean lesbian subculture.

keywords : Butch, Lesbian, Lesbian subculture, Radical feminism, Escape-the-corset movement, Young lesbians

Student Number : 2020-24911